[UCI]I804:24011-200000233100

2006年 8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位
論文

日本語의 助動詞
「れる」「られる」의 研究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明 愛 利

2006年8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日本語의 助動詞 れる・られる의 研究

明 愛 利

日本語의 助動詞
「れる」「られる」의 研究

- 受動·可能 表現을 中心으로 -

A study of Japanese Auxiliary Verbs ‘reru’‘rareru’

*2006*年 *8*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本語敎育專攻

明 愛 利

日本語의 助動詞
「れる」「られる」의 研究

指導教授　金　仁　炫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6年　4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明　愛　利

明愛利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 授 박청국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김인현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정의상 印

*2006*年 *6*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Ⅰ. 序論……1
Ⅱ. 本論……4
1. 助動詞의 定義……4
2. 「れる」「られる」가 内包하는 諸用法……10
2.1. 受動……11
2.2. 可能……12
2.3. 自発……13
2.4. 尊敬……14
3. 「れる」「られる」의 受動 表現……16
3.1. 受動의 意味와 機能……16
3.2. 他動詞와 自動詞의 受動……19
3.2.1. 他動詞의 境遇……20
3.2.1.1. 直接受動……20
3.2.1.2. 間接受動……22
3.2.1.3. 所有受動……23
3.2.1.4. 他動詞受動의 格関係 変化……25
3.2.2. 自動詞의 境遇……32
3.2.2.1. 間接受動……32
3.2.2.2. 自動詞受動의 格関係 変化……33
3.3. 直接·間接·所有 受動의 相関関係……37
3.3.1. 直接受動과 間接受動……38
3.3.2. 間接受動과 所有受動……39
3.3.3. 直接受動과 所有受動……40
4. 「れる」「られる」의 可能 表現……43
4.1. 可能의 意味와 機能……44
4.2. 可能의 主体와 対象……47
4.3. 可能表現의 格関係 変化……49
4.4. 受動과의 相関関係……50
Ⅲ. 結論……54
参考文献……57
英文抄録……60

Ⅰ. 序論

韓国語와 日本語 兩国語는 文法構造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部分들이 一致되어 있어서, 日本語를 배우는 学習者가 韓国語의 特性을 그대로 日本語에 適用시켜 잘못된 表現을 하는 境遇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境遇로는, 韓国語와 日本語의 語順이 같다고 생각하여, 韓国語의 語順을 그대로 日本語에 適用시키거나, 또한 日本語는 話者가 意図하는 内容이 文末表現에 의해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러한 日本語의 文末表現은 꽤 発達되어 있어, 韓国語로는 表現하기 힘든 部分들이 存在한다. 이러한 部分들은 日本語를 배우는 韓国人 学習者들이 어려워하는 部分 中에 하나이며, 誤用을 범하기 쉬운 部分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日本語의 言語的 特性을 明確히 하여, 올바른 日本語 活用을 指導하는 것은, 日本語를 研究하는데 重要한 課題라고 思料되며, 体系的이고 올바른 日本語 教育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部分들을 考慮하여, 本 論文의 研究 方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첫째, 日本語 学習者가 当面하는 日本語表現 중에서 相当한 陳述力이 内在되어 있는 助動詞에 대하여 研究한다.

話者가 聴者에게 表現하는 方式은 文末表現에 의하여 変貌되고, 또한 日本語文에서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는 助動詞는, 定義의 問題와 所属語의 問題가 아직까지 明確하게 決定되지 않았으며, 이는 여러 가지 文法論上의 問題와 또한 立場의 差異에 따라 여러 見解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助動詞 定義의 問題에 대한 学者들의 見解에 대하여 考察 하여, 助動詞의 意味를 理解하고, 이에 相応하는 適当한 日本語 活用이 될 수 있게 指導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助動詞 중에서도「れる」「られる」에 대하여 論한다.

「れる」「られる」는 単一 形態로 受動·可能·自発·尊敬의 意味를 포함한다.

a. 太郎が 次郎に 仕事を いいつけ られ ている。

b. 太郎が 次郎に 仕事を いいつけ てい られる。

위의 例文에서 a는 「られる」가 <次郎に>와 直接関係하고 있지만, b에서의 「られる」는 <太郎が>와 関係하고 있으며, <次郎に>와는 直接関係하고 있지 않다. 이는 a의 「られる」는 受動의 意味를 나타내고, b의 「られる」는 尊敬 혹은 可能의 意味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은 새로이 習得하고자 하는 学習者에게 형식만으로는 理解할 수 없는 部分일 것이므로,「れる」「られる」의 네 가지 意味의 理解와, 이를 判別할 수 있는 分別力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れる」「られる」는 状況 및 動詞의 性質에 制約을 받는데, 「れる」「られる」가 意味하는 受動·可能·自発·尊敬에 대하여 論하여, 学習者들이 이를 判別할 수 있는 分別力을 키우는데 重点을 두었다.

셋째, 助動詞 「れる」「られる」가 의미하는 受動·可能·自発·尊敬 中, 受動과 可能을 中心으로 展開한다.

他로부터 '被害를 입는다'등의 意味를 나타내고 싶은 境遇에 受動表現이 자주 쓰인다. 이 受動表現의 境遇, 主語와 動作과의 関係는 間接的이며, 動作에는 他動詞는 물론이거니와, 自動詞도 使用되는데, 이 自動詞의 境遇는 学習者에게 状況을 잘 説明하지 않으면, 誤解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 AがBに本を借りた。

위의 例文은, B의 立場에서는 <BがAに本を貸した。>가 되고, 受動表現의 <借りられる>를 使用할 수 있는 境遇는, < (Bから本を借りようと思っていたのに) Aに (先に) 借りられてしまった。>C의 発言의 境遇라는 状況까지도 説明할 必要性이 있다. 이렇듯 話者의 態度나 立場을 나타내는 助動詞 「れる」「られる」의 受動表現에 있어서는 , 話者와 聴者와의 立場이나 状況에 따른 指導가 重要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可能表現의 範疇에 包含되는 「受動的 可能」은, 受動의 意味도 内包하고 있으며, 思考·心

理 動詞의 境遇에 있어서는, 意味的으로 受動을 表現하는가, 아니면 可能을 表現하고 있는가를 判別하기 어려운 境遇가 많다. 이렇듯 受動과 可能의 関聯性을 엿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本稿에서는 「れる」「られる」가 주로 担当하는 네 가지 意味 중에서 受動과 可能을 中心으로 論하여, 学習者들이 이러한 境遇에 当面했을 때, 당황하기 쉬운 部分들을 바로잡는데 焦点을 두었다.

日本語의 教育은 올바른 日本語를 習得하기 위한 것이고, 最大한 效率的이고 応用力 있는 日本語를 活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잘못 習得된 日本語나, 잘못 自体를 알지 못한 채 굳어져 버린 言語習慣들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日本語의 기초단계에서부터 概念을 확실히 정립해 두어야 한다고 思料된다.

따라서 前述한 세 部分들을 重点的으로 展開하여, 助動詞의 意味를 理解하고, 助動詞 中에서도 「れる」「られる」가 意味하는 受動·可能·自発·尊敬, 특히 受動과 可能을 判別할 수 있는 分別力을 키워, 学習者들의 올바른 理解와 效率的이고 応用力 있는 日本語의 活用을 돕고자 함을 本 論文의 目標로 한다.

Ⅱ. 本論

1. 助動詞의 定義

助動詞의 定義를 살펴보면,

> 常に他の語に付属して用いられるもので、多くのものは活用がある。体言に接続するものもあるが、主として用言に接続して用いられ、種々の意味を加えたり、表現主体の判断を表したりする。[1)]

위와 같이, 助動詞는 付属語로서 活用하며, 用言에 接続하여 意味를 添加하며 体言이나 用言에 接続하여서, 叙述의 機能을 附与해 주는 品詞라는게 一般的이다. 이는 中世·近世의 <てにをは>研究에 있어서 助詞등과 一括해서 認識되었고, 近代에 들어와 田中義廉의 『小学日本文典』(明治7年 刊)에 助動詞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品詞의 一種이 아니라 補助動詞的인 活用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ヘボン의 『和英語林集成』 第三版(明治19年 刊)에 <Jodoshi ジョドウシ 助動詞 n. (gram) An auxiliary verb>의 項目이 새롭게 생겨났는데, 이쯤에 <auxiliary verb>의 飜訳語로서 <助動詞>가 使用되기 시작하였다.[2)]

그러나, <助動詞란 무엇인가>라는 定義의 問題도, <어떤 単語를 助動詞로 할것이가>라는 所属語의 問題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助動詞에 대하여 여러 가지 論争이 있는데, 그 중 主된 論点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다음과 같다.[3)]

---

1) 日本語教育学会(1990), 『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 大修館書店, p.465
2) 鈴木一彦·林巨樹(1984), 『研究資料日本文法 -助辞編(二) 助動詞-第6巻』, 明治書院, p.44
3) 上掲書, p.82

① 助動詞를 独立한 単語, 하나의 品詞로서 認定할 수 있는가.

② 助動詞의 意味는, 用言등의 意味와 어떻게 다른가.

③ 助動詞의 構文的 機能은, 用言등과 어떻게 다른가.

위와 같이, ①의 品詞認定에 대해서는 <앞의 接語와의 사이에 다른 単語를 넣을 수 없으므로 独立된 単語로 認定되지 않는다>, <独立性이 稀薄하다는 것은 認定하지만, 상당히 自由롭게 여러 単語와 接続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品詞로 認定된다> 등의 観点에서 論争이 행하여져 왔으며, ②와 ③ 즉 意味와 職能을 具体的으로 検証해 감으로써, 帰納的으로 解釈하려는 方向으로의 研究 또한 행하여지고 있다.

助動詞의 意味와 職能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見解가 成立한다. 한 가지는 '助動詞의 意味와 職能은 用言등과는 전혀 次元이 다르다'고 하는 見解(異次元説)이며, 또 다른 하나는 '助動詞의 意味와 職能은 用言등과는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次元의 것은 아니다'라는 見解(同次元説)이다.

異次元説은 時枝誠記의 説이다. 時枝説은 客体的인 事項을 表現하는 用言등의 詞를, 助動詞등의 辞가 話者의 立場이나 判断을 나타내어 総括·統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되는 用言등과 統一하는 助動詞와의 사이에는, 構文的 職能에 있어서도, 意味에 있어서도 次元의 相違가 存在한다는 것이 된다. 이 説에 依하면, 形態上으로는 連続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上接語와 助動詞와의 사이에는 決定的인 差異가 있다는 것이다. 助動詞의 単独性을 最大限으로 認定한 時枝는 助動詞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 助動詞は辞に属するものとして、辞の一般性に於いて、他の感動詞、接続詞、助詞と同様に、話手の立場の直接表現であり、従って、話手以外の思想を表現することの出来ないものであり、常に詞と結合して、初めて具体的な思想となることにおいて、共通するのであるが(中略)助動詞は話手の立場中、何等かの陳述を表現するのであり。[4]

---

4) 時枝誠記(1978), 『日本文法口語編』, 岩波書店, p.153

이와 같이 助動詞는 辞(概念過程을 包含하는 형식을 辞로 하고, 概念過程을 包含하지 않는 형식을 詞로 하였다.)에 属하는 것으로, 다른 感動詞·接続詞·助詞와 같이 話者의 直接表現이고, 따라서 話者 以外의 思想을 表現할 수 없으며, 항상 詞와 結合하여 使用된다. 또한 助動詞는 陳述을 表現하므로, 대부분의 境遇 活用을 한다는 것이, 辞와 다른 점이라고 하였다.

한편, 同次元説은 助動詞가 文의 構成에 있어서 単独으로 作用한다는 説(単独説)과, 用言등에 附属하는 形態를 取한다는 説(附属説)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게다가 附属説은 上接語의 用言에서 分出한 것이 助動詞라고 하는 分出説과, 上接語의 用言등에 여러 意味를 添加하여 한 単位를 形成하는 것이 助動詞라는 添加説로 나눌 수 있다.

単独説은 北原保雄의 説이다. 北原説에서는, <きのう花が咲いた>라는 文은, <花が>가 主格으로서 <咲い>에, <きのう>가 時格으로서 <た>가 더해진 <花が咲いた>에 格関係를 가진다는 形態로 構成되어져 있다는 説明이다. 助動詞는 動詞등과 格関係의 構成에 加担하는 機能을 가진다고 본다.

付属分出説은 山田孝雄의 説이다. 山田説에서는 用言등의 語尾가 더욱 複雑하게 屈折·分出하여, 여러 가지의 意味를 補充하는데 使用하는 語를 複語尾라 하고, 複語尾는 品詞로서의 資格을 認定하지 않지만, 一般的인 助動詞에 相当한다하여, 複語尾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 動詞、存在詞がその本来の活用のみにて十分に説明、若しくは陳述の作用を果たすと、能はざる場合に、その活用より分出して、種々の意義をあらはすに用いる特別の語尾を今仮に、複語尾と名づく。5)

따라서 用言의 活用形에서 分出하여 여러 가지 意義를 나타내는데 使用되는 特別한 語尾를 複語尾로 称하고, 이것을 하나의 語로써 認定하지 않고 動詞에 包含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用言의 語尾에서 分出한 것을 複語尾(＝助動詞)라고 하는 付属

5) 山田孝雄(1983), 『日本文法学概論』, 宝文館, p.315

分出説은 <なり>·<だ>등 体言에 接続하는 것을, 用言에 接続하는 것에서 存在詞등으로서 区別할 수밖에 없다. 이 山田説을 継承하고 発展시킨 説이 渡辺実의 설이다. 渡辺説은 体言接続 以外의 助動詞를 品詞로서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助動詞를

<表1>

類 / 種	第 1 類				第 2 類		第 3 類
甲種	だ				らしい		だろう
乙種	せる(させる)	れる(られる)	たい	そうだ	ない	た	う(よう)
			まい				

에서, 乙種은 예컨데,

本を<u>読まない</u>。

에 있어, 「ない」는 形態意義的으로는 「読まない」에서 分析할수 있지만, 職能的으로는 分析할 수 없다는 理由때문에, 単語로는 認定하기 어려우며, 甲種에 대해서는, 그것이 上接하는 体言과 単純한 形態的 連結이나 単純한 意義的 連結에 그치지 않고, 職能的 連結을 이룬것으로, 形態意義職能的 単位로서 認定된다는 理由로, 品詞論上의 位置가 附与된다고 하여, 判定詞라 命名하고 있다.[6)]

付属添加説은 橋本進吉이다. 橋本説에는 여러 語에 接続하여, 이것에 叙述의 意味를 添加하는 것이 助動詞라 하고, 助動詞는 上接語와 하나가 되어 文의 一成分을 構成하고 있으며, 助動詞를 品詞로 認定하고 있다.

助動詞とは単独で文節を構成しうる「詞」にともなって用いられ、断続を示すしるしとしての活用をもつもの。[7)]

6) 北原保雄(1981), 『日本語助動詞の研究』, 大修館書店, p.25

위와 같이 橋本는 助動詞를 単独으로 文節(助動詞가 下接하여 생긴 単位를 文節이라 하고, 接尾語가 下接하여 생긴 単位를 語라하고 있다)을 構成할 수 있는 「詞」(単独으로 文節을 構成하는 것을 詞라하고, 他語와 함께 文節을 構成하는 것을 辞로 하고 있다)에 同伴하여 使用되고, 断続을 나타내는 表示로서 活用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文節論에 土台를 둔 文法論의 限界에 대하여 많은 指摘이 있기는 하지만, 橋本進吉의 主張은 助動詞 研究의 基礎가 되고 있다.

橋本와 같이 助動詞를 独立된 하나의 品詞로 認定하는 大槻文彦는 助動詞라는 名称을 처음으로 使用하였으며,

> 助動詞ハ、動詞ノ変化ノ、其意ヲ尽サザルヲ助ケムガ為ニ、其下ニ付キテ、更ニ、種々ノ意義ヲ添フル語ナリ。

助動詞를 動詞의 意味를 더하기 위하여 動詞에 接続하여 여러 가지 意味를 添加하는 語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松下大三郎는 助動詞를 品詞로 認定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ユニーク한 言語単位의 把握方法에서 助動詞에 相当하는 것을 不完辞의 하나로, 이 점에 대하여 松下는 다음과 같이 陳述하고 있다.

> 従来の諸文典に品詞として挙げる助詞、助動詞は原辞であって詞ではない。其れ故本書の五品詞中には助詞、助動詞は含ませて居ない。助詞は静助辞で助動詞は動助辞である。共に詞の一種ではなくて唯詞を造る材料即ち原辞である。（中略）助詞、助動詞は単独性を欠くものであつて、自己だけの力で一概念表すものではない。[8)]

松下는 一般的인 助動詞를 動助辞라 称하고, 言語構成上의 最低段階로 詞의 構成要素인 原辞에 包含시켰으며, 話説을 構成하는 言語単位로서, 断句·詞·原辞의 三段

---

7) 橋本進吉(1965), 『助詞·助動詞の研究』, 岩波書店, p.227
8) 松下大三郎(1978), 『改撰標準日本文法』, 勉誠社, p.191

階를 設定하였다. 断句라는 것은 一般的인 文에 대략 相当하고, 詞는 断句의 成分인 <自己だけの力>로 概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으며, 独立하여 概念을 나타내지 못하고, 항상 다른 詞와 結合하여 概念을 나타내는 것을 原辞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学者에 따라 見解를 달리하는 日本語의 助動詞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먼저 選択의 여지를 厳格하게 할 必要도 있겠지만, 前述한 바와 같이 <助動詞란 무엇인가>라는 定義의 問題도, <어떤 単語를 助動詞로 할것이가>라는 所属語의 問題도 아직까지 明確하게 決定되지않은 事項이므로, 本稿에서는 助動詞라는 用語를 厳正하게 規定하기보다는, 学校文法에서의 넓은 意味의 助動詞 定義를 따르기로 한다.

2. 「れる」「られる」가 内包하는 諸用法

現代 日本語의 助動詞 「れる」「られる」를 受動·可能·自発·尊敬의 助動詞라고 하는데, 受動<発見する→発見される(발견되다)> · 可能<食べる→食べられる(먹을 수 있다)> · 自発<想像する→想像される(상상되다)> · 尊敬<出発する→出発される(출발하시다)>와 같이 使用된다. 実際 機能 分担에 있어서는 受動 · 尊敬이 優勢하고, 可能은 다른 形態로 이행 중이며, 自発의 境遇는 意味的 制約으로 그 用法이 一部 動詞에 限定되어 있다. 이는 어떤 動詞에는 「れる」를 接続하고, 또 어떤 動詞에는 「られる」를 接続하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れる」「られる」라고 表現하며,「異形態」로서 接続에 있어 差異点을 보일 뿐, 活用이나 意味 · 用法에 있어서 差異는 없다. 이는 受動, 尊敬, 可能, 自発이라는 意味上의 特性 때문에 반드시 動詞에만 接続되고 形容詞나 形容動詞와는 接続되지 못하며, 第1類動詞의 未然形과 第3類動詞 「する」의 未然形 「さ」에는 「れる」가, 第2類動詞와 第3類動詞 「来る」, 그리고 「する」의 未然形 「せ」에는 「られる」「られる」가 接続된다. 自発의 意味로 쓰일 境遇에 命令形은 없으며, 可能의 意味로 쓰이는 「れる」「られる」의 境遇는, <書ける>·<読める>등, 이른바 「可能動詞」를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使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또한 命令形은 存在하지 않는다. 尊敬의 意味로 쓰일 境遇는 고풍스러운 말씨에 쓰이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命令形은 거의 使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네 가지의 意味는 하나의 系列이며, 이 分類는 便宜的인 것[9]으로서, 実際로는 相互 関係를 생각할 必要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れる」「られる」의 受動, 可能, 自発, 尊敬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

9) 鈴木一彦·林巨樹(1985), 『研究資料日本文法 -助辞編(三) 助詞·助動詞- 第7巻』, 明治書院, p.105

2.1. 受動

現代 日本語의 受動表現은 受動의 助動詞 「れる」「られる」에 의해 이루어지며, 一般的으로 動作·作用의 主体가 다른 무엇인가에 動作·作用을 가한 境遇의 動作主를 主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받는 쪽, 즉 被動作主를 主役으로 하여, 事態를 描写하는 表現을 말한다. 즉, 受動文이란 <子供が川で溺れかけているところ>를 <ある青年が助けた>라고 하는 事件을 말할 때, 動作主 <青年>을 主格으로 하여,

1a) 青年が子供を助けた。

1a)과 같이 나타내는 것이 普通이지만, 話者의 관심이 <子供>의 측에 있으면, 그것을 主役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b) 子供が青年に助けられた。

一般的으로, <XがYに(ら)れる>라고 하는 文이, Y가 어떤 動作·行為를 하고, X가 그 影響을 받는다라는 意味를 나타낼 때, 그 構文을 受動文이라고 한다.
이러한 受動이 西洋에서는 他動詞에 국한되지만, 日本語에서는 自動詞도 可能하다는 것이 日本語 受動의 特徵이며, 受動文에는 能動文과 対応하고 있는 受動을 「直接受動」, 能動文의 대응이 없이, X가 間接的으로 影響을 받는다는 것을 「間接受動」이라 하며,

2) 彼女は何者かに宝石を盗まれた。

2)와 같이, <XがYにZを(ら)れる>에서 Y가, X와 무언가의 関係가 있는 Z(身体部位·所有物·親族또는 知人)에 대하여 무언가를 하고, X가 그것에 의해 影響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所有受動」이라 하는 立場도 있는데, 이에 대한 内容은 後述할

<3. 「れる」「られる」의 受動 表現>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2. 可能

可能도 助動詞 「れる」「られる」의 意味중 하나로, <～할 수 있다>, 또는 <～할 能力이 있다>라는 意味를 말하며, 動作의 主体가 動作을 意志的으로 行하는 境遇, 그 動作을 実現하는 것이 可能한지의 与否를 陳述하는 文을 可能文이라 한다. 이에는 動作의 主体에 중점을 두는 境遇와 外的 条件에 중점을 두는 境遇가 있는데, 前者는 이른바 可能表現이며, 후자는 주로 自発表現으로 使用되지만, 可能表現으로 使用되는 境遇도 적지 않다.

可能文에서는, <見える>와 <見られる>등 自発동사와의 差異가 問題가 되는데,

3a) 最近は忙しくてテレビが見えない。(自発動詞)

3b) 最近は忙しくてテレビが見られない。(可能文)

위의 例文 3a)의 自発動詞는 어떤 事物·事態나 音이 視覚이나 聴覚으로 자연히 들어오는 것을 叙述하는 文이고, 3b)의 可能文은 主体가 動作을 意志的으로 일으키는 것을 前提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4a) 昨夜のスポーツニュースはいそがしくて見られなかった。

4b) 昨夜のスポーツニュースはいそがしくて見えなかった。*

5a) ここから白い建物が見られます。*

5b) ここから白い建物が見えます。

4)와 5)에서 <見える>는 자연히 눈에 들어오는 境遇이고, <見られる>는 어떤 状況이나 기회가 있어 可能하다는 差異가 있으므로, 4b)와 5a)는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現代 日本語에서의 可能表現은 (1)動詞 자체에서 派生되는 可能型(可能動詞) ①「れる」「られる」②第1類動詞에서 派生한 可能動詞 ③「する ⇒ できる」 (2) 動詞의 基本형에 「～ことができる」를 接続시키는 형식, (3) 動詞의 연용형에 「～うる/～える」에 의해 接続시키는 方法과 같이, 述語 형식에 의해 多様하게 나타내어지는데, 本稿에서는 「れる」「られる」만을 研究하고자 함으로, 「れる」「られる」以外의 다른 형식은 省略하기로 하며, 또한 「可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内容은 後述할 <4. 「れる」「られる」의 可能 表現>에서 다루고자 한다.

2.3. 自発

自発이란, 感情·思考·判断·認識·動作등이 主体의 意志와는 無関하게, 혹은 그것에 反하는 形態로 자연히 出現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前述한 「受動」·「可能」과 같이, 格助詞와의 相関関係를 이루지만, 事件을 일으키는 動作主가 없다는 점이 特徴이다.[10)]

6) あの頃のことが (僕には) なつかしく思い出される。

自発構文은, 他動詞의 境遇, 通常 「に格」·「が格」을 취하고, 1人称 主語를 갖는다. <糸が切れる>등의 自動詞도 自発과 마찬가지로 人為와는 無関하게 事件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지만, 自動詞文은 그 자체로 自発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自発表現에는 使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自発은 思考나 動作의 主体를 명사구로서 가지는 것에 대해, 自動詞文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兩者의 差異가 있다.

自発을 나타내는 文法的 형식에는,

---

10)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 くろしお出版, p.273

7) 彼の心遣いが感じられる。

8) 彼の今の姿を見ると思わず泣けてしまう。

7)과 같이, 助動詞 「れる」「られる」의 境遇에는 感情·思考·判断·認識등을 나타내는 意味적으로 한정되는 동사, 즉 <思う>·<思い出す>·<案じる>·<心配する>등 주로 思考의 動詞가 大部分이며, 8)과 같이 第1類動詞의 接辞-eru의 境遇에는 <笑う>·<泣く>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意志的인 動作을 나타내는 一般動詞에서 派生되어지는 生産性은 없어, 口語体에서는 그다지 使用되지 않으며, 現代語에서는 오히려 <思わず>·<自然に>등의 副詞나, <てしまう>등의 補助動詞로 表現하는 것이 普通이다.

2.4. 尊敬

尊敬語는 敬語의 一種이며, 文 主語의 位置에 올 수 있는 人物에게의 敬意를 나타내는 것으로, 主体尊敬語라고도 불리운다.

이는 規範的 立場에서, 「れる」「られる」에 의한 尊敬表現은 <お/ご～になる>·<お/ご～なさる>에 비해 경의도가 낮다고 보는 쪽이 많지만, 地域에 따라서는 이 表現이 주된 尊敬語인 境遇도 있다. 또한, 「れる」「られる」는 規則的이고 生産的이어서 会話体에서는 특히 男性들이 많이 使用하고 있으며, 文章体에서도 論文·新聞·放送등에서 널리 使用되고 있는 등 그 使用이 拡大되고 있다. 이는 特別히 높은 水準의 尊敬表現이 아니고, 지극히 一般的인 表現이기 때문에 口語的인 立場에서 보면 「れる」「られる」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가장 普遍的이라는 것이다.

以外의 尊敬表現에는 <いらっしゃる>·<おっしゃる>·<めしあがる> 등과 같은 別途의 敬語가 주로 使用되며, 또한 사역「せる」「させる」에 尊敬「れる」「られる」를 접속하여, 더욱 높은 尊敬의 意味를 나타내기도 한다.[11)]

---

11) 金永佑(1980), 「現代日本語の助動詞の概念と用法について -主に韓国語の補助語幹および補助用言の比較を中心にして-」, 釜山女大論文集 第8輯, 新羅大学校, p.17

9) 殿下は見学を終えさせられて、御宿所へ赴かせられた。

以上에서 助動詞 「れる」「られる」의 受動, 可能, 自発, 尊敬의 意味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受動은 一般的으로 動作·作用의 主体가 다른 무엇인가에 動作·作用을 가한 境遇의 動作主를 主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받는 쪽, 즉 被動作主를 主役으로 하여, 事態를 描写하는 表現을 말하며, 動作의 主体가 動作을 意志的으로 行하는 境遇, 그 動作을 実現하는 것이 可能한지의 여부를 陳述하는 文을 可能文이라 한다. 또한 自発은 感情·思考·判断·認識·動作등이 主体의 意志와는 無関하게, 혹은 그것에 反하는 形態로 자연히 出現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에는 <思う>·<思い出す>·<案じる>·<心配する>등 주로 思考의 動詞가 大部分이다. 마지막으로 尊敬은 文 主語의 位置에 올 수 있는 人物에게의 敬意를 나타내는 것으로, 主体 尊敬語라고도 불리우며, 「れる」「られる」를 가지고 나타내는 尊敬表現이 지극히 一般的인 表現이기 때문에 口語的인 立場에서 보면 가장 普遍的이라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意味는 하나의 系列이며, 이 分類 또한 便宜的인 것, 다시 말하면, 「れる」「られる」라는 単一 形態로 여러 가지 意味(受動, 可能, 自発, 尊敬의 意味)를 갖기 때문에 이를 判別할 수 있는 分別力이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3. 「れる」「られる」의 受動 表現

3.1. 受動의 意味와 機能

受動은 助動詞 「れる」「られる」를 갖고 나타내는 것 중 하나로, 한쪽 (動作主)에서 다른 쪽(被動作主)으로 어떤 行為(出来事)가 미쳐 그 影響을 받는 境遇에, 받는 쪽(被動作主)의 사람이나 事物을 主格으로 固定시켜 나타내는 表現을 意味한다. 이에 比해 能動은 他人의 動作이나 行為의 影響을 입어 表現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行하는 行為나 動作을 말하며, 受動文은 能動文에 비해 複雜한 形態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受動를 使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 機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境遇라고 할 수 있다.[12)]

① 対応하는 能動文의 動作主를 不問에 붙이고 싶은 境遇.
② 影響을 받는 쪽이 影響을 주는 쪽보다 가까운 境遇.
③ 従属節의 主語를 主節의 主語와 統一하고자 하는 境遇.
④ 迷惑의 気分을 나타내고 싶은 境遇.

① 対応하는 能動文의 動作主를 不問에 붙이고 싶은 境遇.

다음의 例文의 境遇를 보면,

10a) 1945年8月6日、広島に原爆を<u>投下した</u>。
10b) 1945年8月6日、広島に原爆が<u>投下された</u>。

10)에서 「投下する」의 格枠組み[13)]는 [が<動作主>, を<対象>]이므로, が格을 言語

12) 庵功雄(2002), 『新しい日本語学入門』, J&C, p.104

的으로 表現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境遇 「が格」은 特定하기 어려우므로, 能動文을 使用할 수 없다. 그러나 受動文에서는 <投下される>의 格枠組みが <が[対象], (に/によって[動作主])>로 変化하고, 動作主를 表現하지 않아도 完全文이 된다. 이것은 受動化가 動作主를 두드러지지 않게 한다(脱焦点化 defocusing of agent)는 機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通常은 10a)보다도 10b)가 자주 쓰인다. 또한

11) 1998年、長野でオリンピックが開かれた。

11)의 境遇, 能動文의 主語(動作主)는 特定할 수 없으며, 그다지 具体的인 存在이지는 않다. 이런 境遇에는 이들의 動作主를 不問에 붙이기 위하여 受動文이 자주 使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影響을 받는 쪽이 影響을 주는 쪽보다 가까운 境遇.

다음의 例를 보면,

12a) 知らない男が弟を殴った。

12b) 弟は知らない男に殴られた。

12)에서는 影響을 주는 쪽이 <知らない男>이고, 影響을 받는 쪽이 <(私の)弟>이다. 이 境遇, 影響을 받는 쪽이 話者에게 가깝기 때문에, 뚜렷하게 受動文이 自然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3) 例) 昨日、公園で太郎が男の子を殴った。

이 文에서는 「昨日」「公園で」「太郎が」「男の子」가 , 動詞「殴る」의 補語이다. 여기에서 「太郎が」「男の子」와 같이, 文이 成立하기 위해 最低限의 必要한 補語를 그 述語의 必須補語(또는 項)라 하고, 「昨日」「公園で」처럼, 文이 成立하기 위해 最低限으로 必要하다고 할 수 없는 補語를 副次補語라고 한다. 이와 같이 「殴る」라는 動詞는 ガ격과 ヲ격을 必須補語로 취하는데, 이렇듯 어떤 動詞가 취하는 必須補語의 リスト를 그 動詞의 格枠組みラ 한다.

13a) 弟が私を殴った。

13b) 私は弟に殴られた。

또한 13)처럼, 影響을 받는 쪽이 <私>의 境遇는 話者에게 가장 가깝기 때문에 受動文을 使用하는 편이 自然스러우며, 다음과 같은 段階性을 가진다.

私(話し手) > 私(話し手)の親族·知人 > 第三者 > もの

이 段階의 左側이 影響을 받는 쪽이고, 右側이 影響을 주는 쪽의 境遇에는 通常, 受動文을 使用하는 편이 自然스럽다.

③ 従属節의 主語를 主節의 主語와 統一하고자 하는 境遇.

다음의 例文에서,

14a) 先生が太郎を叱った。

14b) 太郎は泣いた。

14)의 a.,b.를 하나의 文으로 할 境遇에는,

15a) 先生が太郎を叱って、太郎は泣いた。?

15b) 先生に叱られて、太郎は泣いた。

15a) 처럼 単純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같은 要素 <太郎>가 主節과 従属節의 양쪽에 있으므로 主節의 統一이 可能하다. 이 境遇 15b)와 같이, 受動을 使用하여 従

属節의 主語를 主節의 主語에 包含시키는 것이 自然스럽다.

④ 迷惑의 気分을 나타내고 싶은 境遇.

여기에서는 間接受動이 使用되는 要因이다. 다음에서

16a) 私は友だちにおもちゃを壊された。

16b) 私は [友だちがおもちゃを壊す] られた (迷惑)

間接受動文 16a)의 構造는 16b)와 같이 된다. 이 16b)의 「られ」는 迷惑라는 気分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友だちがおもちゃを壊した>라는 것을 迷惑라는 気分으로 話者와 結合시키는 것이 間接受動의 機能인 것이다.

3.2. 他動詞와 自動詞의 受動

現代 日本語 受動의 特徵 중 하나는, 英語의 受動文과는 달리 自動詞도 受動文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이는 間接受動에 한하며, 間接受動은 自動詞와 他動詞 모두를 취할 수 있다. 이 自動詞와 他動詞는,

a. 自動詞 : <ガ(動作主), ヲ(対象)>의 格枠組み를 包含하지 않는 動詞.

b. 他動詞 : <ガ(動作主), ヲ(対象)>의 格枠組み를 包含하는 動詞.

a.·b.와 같이 定義할 수 있으며, 이는 自動詞의 主格과 他動詞의 対格이 같은 深層格[14]을 가지며, 自動詞와 他動詞가 形態的으로 関係를 가질 境遇, 양자 사이에는

14) 例) a. 花瓶が割れた。

b. 太郎が花瓶を割った。

이 두 文에서 「花瓶」의 格은 다르지만, a.b. 모두 마찬가지로 「割れたもの(対象)」이다. 즉 이 두 文에서는 다른 格의 名詞句가 같은 文法的意味를 나타내고 있는

<自他의 対応이 있다>라고 한다. 이렇듯 自他의 対応을 가지는 自動詞를 通常 非意志 自動詞라하고, 有情物이 意志的으로 행하는 動作을 나타내는 自動詞를 意志的自動詞라 한다. 이처럼 自動詞에는 意志的인 動詞와 非意志的인 動詞가 있는데, 이를 三上章은,

<表2>

動詞 ┌所動詞……受動にならない(非意志的自動詞に相当)
　　└能動詞 ┌ 自動詞…直接受動にならない(意志的自動詞に相当)
　　└ 他動詞…直接受動になる

<表2>와 같이, 受動이 成立하는 動詞를 能動詞, 受動이 成立하지 않는 動詞를 所動詞로 分類하고, 또한 能動詞는 直接受動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을 모두 成立하는 他動詞와, 間接受動에 밖에 成立하지 않는 自動詞로 나누고 있다[15]. 또한 日本語의 受動文에는, 「所有受動」이라는 또 하나 타입을 認定하는 立場도 있으며, 이를 학자에 따라 「中間受動」, 「持ち主受身」라고도 하는데, 本稿에서는 이처럼 他動詞의 境遇와 自動詞의 境遇로 分類하고, 他動詞境遇를 直接受動과 間接受動, 그리고 所有受動으로 下位分類하기로 한다.

3.2.1. 他動詞의 境遇

3.2.1.1. 直接受動

一般的으로 能動 他動詞文에서 派生된 受動文은 該当하는 能動文과 일정한 構文的, 文法的으로 対応関係를 이루는데, 이런 類型의 受動文은 意味的으로 主語에 대

것이다. 이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格」에는 表層에서 格助詞나 語順등으로 나타내게 되는 表層格과, 그 名詞句가 뜻하는 文法的 意味를 나타내는 深層格이 있다.
15) 庵功雄(2002), 前掲書, p.129～131

한 動作主나 原因의 関与가 直接的이라는 점에서 直接受動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形態的으로는,

17a) 太郎が花子を殴った。(能動文)

17b) 花子が太郎に殴られた。(直接受動文)

17a·b)와 같이 直接受動文은 대응하는 能動文을 가지며, 対応하는 能動文을 가지는 受動을 直接受動이라고 한다. 이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他動詞에 制限된다.

17a) 太郎が 花子を 殴った。(能動文)

17b) 花子が 太郎に 殴られた。(直接受動文)

그리고 이와 같이, 直接受動文에서는 能動文의 主語는 受動文의 目的語가 되고, 能動文의 目的語는 受動文의 主語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直接受動文으로 転換할 수 있는 能動文에는,

· 対象을 ヲ格으로 나타내는 能動文
· ニ格 성분을 가지는 能動文
· カラ格 성분을 가지는 能動文

이와 같은 能動文이 直接受動文으로의 転換이 可能하다. 이는

18a) 犬が子供を助けた。(能動文)

18b) 子供が犬に助けられた。(直接受動文)

19a) 犬が子供にかみついた。(能動文)

19b) 子供が犬にかみつかれた。(直接受動文)

20a) 犬が子供からボールをとった。(能動文)

20b) 子供が犬にボールをとられた。(直接受動文)

이와 같이, 能動文 18a)·19a)·20a)는 각각의 18b)·19b)·20b)와 같이 直接受動文으로 転換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受動文에서 状態変化를 일으키는 動作主, 즉 能動文의 主語에 該当하는 성분은 「～ に」·「～から」·「～によって」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16)]

21) 漫画週刊誌は若いサラリーマンによく読まれている。

22) 俺は正直なので、だれからも信頼されている。

23) 地震後、その教会は地域の住民によって再建された。

3.2.1.2. 間接受動

他動詞의 間接受動은 直接受動과 다르게 文法的으로는,

24a) 住民がカラスにゴミを荒らされた。(間接受動文)

24b) カラスが住民にゴミを荒らした。＊(能動文)

24a)와 같이, 主語의 位置에 오는 <住民>이, 能動文<カラスがゴミを荒らした>에 격성분으로서 包含되지 않는 受動文을 말한다. 즉 直接対応하는 能動文이 存在하지 않고, 主語에 対応하는 動作主 또는 原因의 関与가 間接的이라는 意味的 特徴을 가지

16)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 くろしお出版, p.p.633～634

는 受動을 間接受動이라 称한다. 이는

25) 姉は[だれかが絵を先に買った]れた。

例文 25)에서처럼, <だれかが絵を先に買った>라는 事件이 있고, <姉>가 그 事件으로부터 影響을 받았다고 話者가 把握하면, <姉はだれかに絵を先に買われた>라는 間接受動文이 成立한다는 것이다.[17] 또한, 이는 事件으로부터 間接的으로 被害를 받는 사람의 立場에서 陳述하는 것으로, 他動詞의 能動文에 対応하여, 그 때문에 話者가 被害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動作主는 「に格」으로 나타내어 지고, 「～によって」·「～から」는 使用할 수 없다. 또한 動作主는 나타내어지지 않는 境遇가 많다.

26) 次々に料理を出されると、とても食べきれなかった。

27) 狭い部屋でタバコを吸われると、気分が悪くなる。

28) 結婚はおめでたいけど、今あなたに会社をやめられるのは痛手なあ。

또한, 間接受動文은 大部分이 一般的으로 <被害를 입는다>는 意味를 나타내기 때문에 「迷惑受身」라고도 하지만,

29) 母親に手を引かれて門をくぐった。

29)에서 처럼 <引かれて>와 같이 中止形이 쓰여, 잘라 말할 수 없는 境遇등은 被害의 意味를 띠지 않는 境遇도 있다. 또한, 원래의 能動文에 포함되지 않는 第三者가 影響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第三者受動」으로 불리기도 한다.

3.2.1.3. 所有受動

17) 日本語教育学会(2005), 前掲書, p.109

日本語의 受動文에 또 하나 타입을 認定하는 立場도 있는데, 이를 「所有受動」이라 하며 학자에 따라 「中間受動」, 「持ち主受身」이라고도 한다. 이는 目的語가 <所有者＋の＋所有物>의 구조를 가지는 能動他動詞文에서 파생한 受動文을 말하며, 이 目的語에는 所有主의 所有物·身体一部·親族·知人을 나타내는 명사에 한해 表現이 可能하다.

30) 私は今朝、電車の中で足を踏まれた。

31) 森さんは知らない人に名前を呼ばれた。

30)·31)과 같이, 所有受動에서는 一般的으로 動作主의 直接的인 影響이 所有物에 미치므로, 主語인 所有者는 動作主로부터 直接的인 影響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2a) すりが弟の財布をとった。

32b) 弟はすりに財布をとられた。

32c) 弟の財布がすりにとられた。?

32a)는 目的語가 <所有者＋の＋所有物>의 구조로 되어 있는 能動他動詞文에서는, 文法的으로는 32c)와 같은 受動文이 기대되지만, 이 受動文은 普通 단독으로는 일상의 表現으로 使用되지 않는다. 日本語에서는 動作主의 어떤 行為나 動作에 의하여 被動作主가 影響을 받았을 때, 一般的인 被動作主를 主語로 한 受動表現으로서 실현된다. 따라서 32a)와 같이, 動作의 直接 대상이 被動作主 본인이 아닌, 被動作主의 所有物이라고 하여도, 32b)와 같이 被動作主를 主語로 하는 受動文을 使用하는 것이 보다 一般的일 것이며,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內容은 <4.3.3. 直接受動과 所有受動>에서 다루기로 한다.

所有受動도 間接受動과 같이 被害의 意味를 나타내는 境遇가 많지만, 항상 마이너스적인 意味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動作主로부터 무언가의 은혜·이

익을 받는다고 하는 플러스 적인 意味를 나타내는 境遇도 있다.

33a) 彼が私の協力を感謝する。

33b) 私は彼に協力を感謝される。

34a) 先生は高山君の作文をほめた。

34b) 高山君は先生に作文をほめられた。

3.2.1.4. 他動詞受動의 格関係 変化

動詞는 그 意味에 따라 文 中의 여러 名詞와 関係를 가지면서 文을 完結시킨다. 예를 들면, <殴る>라는 動詞는 <AがBを殴る> , 즉 格枠組みは 「が格」과 「を格」이며, 이 文은 「が格」인 動作主 <A>를 主語로 한 表現이다. 이를 <BがAに殴られる>라는 受動文으로 転換할 境遇, 能動文에서의 「を格」인 被動作主 <B>를 主語로 하는 表現이 된다. 이처럼 能動文과 受動文의 사이에는 格의 変化가 存在하는데, 他動詞에서 파생한 受動文과 能動文의 格関係의 変化를 살펴보면,[18]

① AがCを他動詞

CがAに他動詞(ら)れる

35a) ソ連が日本を攻撃する。

35b) 日本がソ連に<u>攻撃され</u>る。

36a) 海が日本を囲んでいる。

36b) 日本は海に<u>囲まれ</u>ている。

이는 他動詞로, 動詞의 語形変化와 함께, 能動文에서의 主格·対格은 受動文에서는 각각의 与格·主格으로 変化하고, 이 変化는 상당히 固定的이다. B에 올 수 있는 名

18) 裵俊鎬(1988), 「日本語のヴォイス」外大論叢 第6輯, 釜山外国語大学校, p.p.270～274

詞는 有情物·非情物을 不問하므로, 非情物의 受動도 흔히 使用되며, 無生物·物件·抽象名詞등도 受動의 主語가 된다. <BがAによって直接～される>라는 意識이 潜在되어 있는 典型的인 受動 형식으로, 이 형식의 受動은, B가 省略되어도 意味가 相通하는 境遇가 있으나, 動作主인 A의 「～に」는 「～によって」意味를 나타내고 있어 省略할 수 없으며, <蜂に刺された>·<蛇に咬まれた>·<あいつに見られて困る>등과 같이 使用된다. ①과 같은 류의 非情의 受動 중,

37a) 太郎がパンを食べる。

37b) パンが太郎に<u>食べられ</u>る。*

37b)는 37a)의 受動 表現이지만, 不自然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日本語의 伝統的인 受動表現에는 非情物 主語가 드물었으며, 이는 外国語의 影響으로 活性化되어, 지금은 一定의 条件 下에 꽤 使用되고 있다.

36)은 35)와 同一하지만, 動詞에 <～ている>가 接続 된 형식으로, 이는 動詞에 의해 항상 <～ている>를 同伴하므로서, 완곡한 判定의 客観性·普遍性을 띠게된다. 따라서 普遍性과 一般性을 要求하는 公的文章에서는 특히 이 형식이 많이 使用되고 있다. <言う>·<述べる>·<触れる>·<宣伝する>·<買う>·<書く>등 社会的 事実을 나타내는 動詞가 많다.

② AがBをCに他動詞

Bが(Aに/から)Cに他動詞(ら)れる

38a) 皆が私を代表に選んだ。

38b) 私は皆から代表に<u>選ばれ</u>た。

이 형식은 前述한 ①과 같고, 格関係의 変化도 전적으로 同一하나, 受動文에 「に格」뿐만아니라, 「から格」도 可能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能動文에서의 動作主인

「Aが」가 受動文에서는 省略되는 境遇가 많다.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に格」이나 「と格」의 名詞가 動詞와 하나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③ (Aが)Bを他動詞
Bが他動詞(ら)れる

39a) 個性を尊重する。
39b) 個性が尊重される。

이 형식은 ①과 格関係의 変化에서는 同一하지만, ①의 受動文에서는 動作主인 「に格」을 省略할 수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省略하는 것이 普通이다. 能動文에서도 主格이 重要시되지 않는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非情의 受動이며, 動作主는 이미 알고 있던지, 또는 그것에 関心이 없어서 나타내지 않으며, 또한 다른 형식들에서는, 受動文의 主語로 「が格」이나 「は格」을 취할 수 있지만, 이 형식은 항상 「が格」만을 취한다는 것이다. 만일 「は格」를 취한다면, <人工衛星は打ち上げられた>와 같이 条件節이거나, <準備は備えたが、大会はまだ開かれない>라는 否定表現등의 境遇이다. 이 형식은 ①의 非情의 受動과 유사하지만, 항상 「が格」을 취한다는 것과 動作主가 省略된다는 점이 다르다.

④ (Aが)CをBに他動詞
CがBに他動詞(ら)れる

40a) (国が)義務を彼に課した。
40b) 義務が彼に課された。

이 형식은 ③의 형식에 与格의 名詞가 添加된 것으로, 그 외는 ③과 同一하며,

<疑いが彼女にもたらされた>와 같은 형식으로, 受動文의 主語가 「が格」을 취하는 것도, 格関係의 変化도 同一하다. 그리고, ⑥에서 논하게 될 「AがBにCを他動詞」의 형식과 이 형식은, <Bに>와 <Cを>의 語順이 다를 뿐이지만, 이 語順의 差異에 따라 相当한 差異를 보인다. 後述할 「AがBにCを他動詞」의 형식은, 有情物 A와 B의 사이에서 格의 交換이 생기지만, 「AがCをBに他動詞」는 C를 강조하기 위한 表現이며, 이는 非情物로, 非情의 受動으로 하기 위한 表現이라고도 한다.

⑤ Aが(Bの)Cを他動詞

(Bの)Cが(Aに)他動詞(ら)れる

41a) 太郎が次郎の本を盗んだ。

41b) 次郎の本が(太郎に)盗まれた。

이 형식의 格関係의 変化는 ①과 같으므로, 格関係의 変化 또한 同一하지만, 対格의 名詞가 <誰の所有物>이라는 것이다. 이는 <盗む>·<取る>·<奪う>와 같은 動詞에 限定되며, 動作主가 자주 省略된다. 한편, 이 형식은 後述할 ⑧의 형식에서, 所有者를 主格으로, 所有物 <を格>을 그대로 남기는 表現도 있다. 結局, 이 형식은 두 가지의 受動表現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直接受動의 構文的인 特徴으로서 能動動詞와 이에서 派生된 受動動詞의 各各의 必須構成要素, 즉 必須項의 数는 基本的으로는 増減이 없다는 特徴을 보인다.[19] 다시 말해서 格의 増減이 있으면, 所有受動으로 分類하고, 格의 増減이 없는 境遇를 直接受動으로 分類 하는데, 이를 後術 할 「3.3.3. 直接受動과 所有受動」部分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受動文은 「AがBを他動詞」라는 能動文의 형식에서 類推할 수 있는 受動文을 다섯 가지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主格인 動作主가 対格인 被動作主를 同伴하는 文, 즉 動作主 측에서 보는 表現이 되는 것이다. 受動文은 能動文에서의 対格을 主格에 오게 하고 主格은 与格

19) 丁意祥(1997), 「日本語 受動文 研究」, 大阪大学博士学位論文, p.46

에 位置한다. 이 受動文의 다섯 가지 형식에 대한 能動文과 受動文의 格関係 変化를 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表3>

	能動	受動
動作主	主格	斜格[20]
被動作主	斜格	主格

지금까지의 형식에서의 動詞는 모두 他動詞이므로, 対格에 올 수 있는 名詞에는 制限이 없고, 有情物·非情物을 不問하며, 動詞의 意味도 여러 가지로 特定 지을 수 없다. 또한, 非情物이 主語가 되는, 다시 말해 「非情의 受動」이 多数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③형식의 非情의 受動은 日常生活에 使用되는 受動中, 約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21]

⑥ AがBにCを他動詞

BがAに/からCを他動詞(ら)れる

42a) 母が私に仕事を頼んだ

42b) 私は母に/から仕事を<u>頼まれ</u>た。

이 형식의 主格·与格의 名詞는 有情物이지만, 非情의 受動도 올 수 있는데, 이 또한 有情物처럼 人格化 되는 境遇라고 볼 수 있다. 이 受動文에서는 動作主가 「に格」이나 「から格」도 可能한데, 이는 動作主로부터 相対에게 積極的으로 影響을 끼치게 한다는 意味를 内包하고 있으며, 이는 直接的 動作의 境遇가 많아서, 「相対方의 受動態」라고도 하며, 述語에 오는 動詞도 対人 関係를 前提로, <AからBへ

20) 対格·与格등의 主格 이 외의 격을 斜格으로 하기로 한다.
21) 森田良行(1982), 『基礎日本語1』, 角川書店, p.474

他動詞られる>라는 형식이 된다. 42)에 있어서는, 主格·与格의 名詞가 有情物로, <渡す>·<贈る>·<与える>·<教える>· <配る>·<預ける>등의 授受를 나타내는 動詞의 境遇에는, 두 가지의 受動表現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43a) 先生が学生に本を渡した。

43b) 学生は先生に本を渡された。

43c) 本が先生から学生に渡された。

44a) 知事が彼に感謝状を贈った。

44b) 彼は知事に/から感謝状を贈られた。

44c) 感謝状が知事から彼に贈られた。

43b)·44b)는 与格을 主格으로 취하는 受動文이고, 43c)·44c)는 直接対象 「を格」을 主格으로 취한 것이다. 間接目的語와 直接目的語를 취하는 動詞는 受動文에 있어서 사람을 나타내는 間接目的語를 主語로 하는 境遇와, 事物을 나타내는 直接目的語를 主語로하는 境遇가 있다. 이는 文法的으로는 43a)·44a)와 같은 能動文에 대하여, 43b)·44b), 43c)·44c)와 같은 受動文이 成立하지만, 日本語受動文의 一般的인 特徵, 즉 사람과 같은 有生名詞가 主語가 되는 것이 普通이므로, 実際로는 間接 目的語가 受動文의 主語가 되는 境遇가 많다. [22]

⑦ AがCを他動詞

BがAにCを他動詞(ら)れる

45a) 隣が二階を建てた。

45b) 私は隣に二階を建てられた。

이 형식은 後述 할 自動詞 ⑩의 형식과 같으며, 基本文에서는 登場하지 않는 第三

22) 이성규(2003), 「日本語受動文の研究」, 筑波大学(言語学)博士論文, p.p.43～44

者가 添加되는 受動表現이다. 自動詞의 ⑩에서는 述語에 오는 動詞가 自動詞이므로, 自己와는 関係없는 사람을 그 動作에 参与시키는 것에서 被害를 입는다는 意味를 内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他動詞임에도 불구하고, 自動詞의 ⑩과 같이 「迷惑의 受動」이 되는 것은, 動詞가 나타내는 動作·作用의 対格은 그대로 두고, 따로 第三者를 添加시켜, 그 사람을 受動의 主語에 오게 하므로 인하여, 迷惑의 意識이 강하다. 이는 다른 형식과는 달리 前述한 형식들의 格関係 変化와 같이 規則的인 対応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受動文에서 能動文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⑧ Aが(Bの)Cを他動詞
BがAにCを他動詞(ら)れる

46a) 兄が私の手紙を見た。
46b) 私は兄に手紙を<u>見られ</u>た。

이는 「を格」에 오는 名詞가 全体와 部分, 所有者와 所有物, 所有者와 性質·側面과 같은 関係를 나타내는 「の格」을 包含하는 형식이다. 이는 名詞인 所有主, 즉 人間을 受動의 主格으로 하여, 사람을 主体로 한 有情의 受動表現이지만, <日本はソ連に北方領土を奪われた>와 같은 非情의 受動도 올 수 있으나, 이는 主格인 <日本>이 擬人化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은 有情物의 受動만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がBのCを他動詞」의 構造를 하고 있는 能動他動詞文이 모두 所有受動으로 転換이 可能한 것은 아니다. 좀 더 자세한 内容은 <直接受動과 所有受動>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위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格関係의 変化가 생긴다.

<表4>

	能動	受動
動作主	主格	斜格

被動作主	斜格	主格

3.2.2. 自動詞의 境遇

3.2.2.1. 間接受動

受動表現은 一般的으로 能動他動詞文에서 派生되지만, 日本語에 있어서는 自動詞의 境遇에도 受動表現이 可能하다는 것은 누차에 걸쳐 説明하고 있다. 이는

47a) 雨が降る。

47b) (私は)雨に降られる。

47c) 家へ帰る途中で雨に降られて、すっかり濡れてしまった。

47b)에서와 같이 自動詞文의 主語였던 <雨>가, 受動文에서는 「に」를 수반하여 動作主의 役割을 担当하게 되고, 自動詞文에서는 意識할 수 없는 第三者인 <私>라는 有情物의 主語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第三者の受動」라고 불리운다. 또한 <雨>의 作用·現象은 被動作主인 <私>의 意志와는 無関하게 일어나며, 그 状況이나 結果로 인하여 被動作主인 <私>가 어떤 影響을 받는다는 立場에서 表現되는 間接受動의 表現이다. 그리고 意味面에서는 작용·현상의 利害関係를 나타내므로 「迷惑の受動」혹은「被害の受動」라고도 하며, 이는 47c)의 <雨に降られる>는 <雨が降る>의 受動으로, 비가 오는 바람에 被動作主가 被害를 입었다(또는 손해를 보았다)에 相当하는 意味를 나타낸다.

48) 忙しいときに客に来られて、仕事ができなかった。

49) 彼は奥さんに逃げられて、すっかり元気をなくしてしまった。

50) 子供に死なれた親ほどかわいそうなものはない。[23]

48)～50)는 自動詞文에서 派生한 受動文의 예이다. 이는 話者에게 마이너스的인 意味, 즉 「迷惑の受動」를 나타내는데, 이 自動詞文에서 派生된 受動文이 이와 같이 全部 마이너스的인 意味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51) みんなに喜ばれる。

52) 風に吹かれて、爽やかな気分になった

53) 微風に吹かれて、旗がなびいていた。

51)·52)에서 알 수 있듯이, 動詞의 語彙的 意味나 文脈的인 要因에 따라서는 플러스的인 意味를 나타내는 境遇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53)에서는 플러스的인 意味도 마이너스的인 意味도 包含하지 않는, 中立的인 意味의 解釈도 可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被動作主의 主観的인 判断에 의해 描写되는 受動文이므로, 「主観的인 受動文」혹은 「心理的인 受動文」이라고도 하며, 日本的인 受動表現이라 한다. [24]

3.2.2.2. 自動詞受動의 格関係 変化

이 自動詞 境遇의 受動은, 두 가지의 형식[25]을 취하는데, 먼저

⑨ AがBに(と)自動詞
BがAに自動詞(ら)れる

54a) 政治が経済に影響した。

---

23)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 前掲書, p.p.633～634
24) 朴青国(1988), 「日本語 間接受動文의 意味 考察」『朝鮮大 外大文化研究』, 朝鮮大学校外大文化研究所, p.283
25) 裵俊鎬(1988), 前掲書, p.p.273～275

54b) 経済は政治に影響された。

55a) 太郎が花子と離婚した。

55b) 花子は太郎に離婚された。

이 형식은 有情物은 물론, 非情物도 受動의 主語가 되며, 例文에서 알 수 있듯이, 斜格이 「を格」을 취하지 않고, 「に格」나 「と格」을 취한다. 直接受動의 형식에서는 主語·主格이 能動文의 直接目的語가 되는데 반해, 여기서는 自動詞를 취함으로서, 目的語가 없으며, 그 대신에 動作의 間接的인 影響을 받는 対象이 된다. 日本語에서 自動詞가 受動表現이 되는 境遇는 迷惑의 意識이 強하지만, 여기서의 自動詞는 迷惑의 意味보다, 対者·対物을 가리키는 自動詞이다. 「と格」을 취하는 형식은, 動詞에 상당한 制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私は彼女と組まれるようになった>와 같이, 兩方이 합쳐져 通常 하나가 된다는 意味의 動詞에 한한다. 이 형식의 格関係에 대한 変化를 整理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5>

	能動	受動
動作主	主格	斜格
被動作主	斜格	主格

이는 前述 한 他動詞와 格関係 変化는 같지만, 前述한 바와 같이 그 内容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⑩ Aが自動詞

(Bが)Aに自動詞(ら)れる

56a) 母が死んだ。

56b) (私は)母に死なれた。

이 형식의 受動文은 一般的으로 「迷惑の受動」로 불리는 것으로, 西洋語에는 없는 日本語式 受動表現이라는 것과, 動作主의 動作·作用은 他人과는 無関하게 행하여지며, 이 같은 動作에 第三者를 添加시켜, 第三者의 立場에서 보는 表現이라는 것은, <3.2.1.3. 他動詞의 格関係 変化 ⑦>에서 前述하였다. 이 형식에서의 動詞는 自動詞를 취한다고 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影響을 끼치지 않는다는 意味를 内包하고 있으며, 그 動作에 第三者가 自身과 関聯시켜, 被動作主의 立場에 두는 表現이므로, 迷惑의 気分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 受動表現의 主格에는 人間 또는 그것에 준하는 有情物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지만, 설령 非情物이라 하더라도 56a·b)와 같이 人格的으로 取扱당하거나, 自然 현상과 같은 自主物인 行為가 認定되는, 즉 感情移入이 可能한 境遇가 이에 該当한다. 이 형식의 格関係 変化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表6>

	基本文	受動文
動作主	主格	斜格(第三者)

自他同型의 動詞에서, 각각의 受動表現에는 根本的으로 다른 面이 있다.

57) 風に吹かれる。

58) 私は風に吹かれる。

이 두 文章에서 살펴보면, 57)은 <風に吹く>라는 것보다 <의외로 추웠다>고 하는 被害意識이 있으나, 58)에는 당연한 일처럼, <부는 바람을 쐬다> 라는 意味의 差異가 있다.

이와 같이 受動文은 人間의 行為(有情物) 뿐만 아니라, 自然現象(非情物)을 自動詞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自動詞를 受動表現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前述한 바와 같이 三上章는 이를 所動詞라 하였다. 이 所

動詞를 表로 分類하여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表에 提示한 日本語의 自動詞群은 그 動作이나 作用이 主語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実際로 自動詞가 受動形態를 취하지 않는다. 이는 朴瞬愛(自動詞と受動, 1981)와 裵俊鎬(日本語の受動, 1990)가 제시한 것을 形態상 類似한 것끼리 묶어 作成한 것으로, 이들 動詞들은 直接受動도 되지 않으며, 그 意味 内容에서 間接受動도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원래 「～れる·～られる」가 되지 않는 것과, 受動으로 表現하면 不自然스러운 動詞들이다.

<表7>

～える	見える、きこえる、冷える、煮える、消える、思える、栄える
～れる	切れる、割れる、倒れる、汚れる、崩れる、壊れる、濡れる、うまれる、めぐまれる、わかれる、あらわれる、あふれる、売れる、零れる、すれる、疲れる、しびれる、晴れる、取れる、くれる、暮れる、知れる
～まる	始まる、加わる、よわまる、決まる、広まる、詰まる、つかまる、あつまる、溜まる
～る	ある(在る·有る)、余る、要る、劣る、凍る、凝る、足る、出来る、載る、似る、鳴る、生る、光る、経る、勝る、漏る、困る、いらっしゃる、おっしゃる
～む	混む、涼む、済む、縮む、富む、膨らむ、澄む、込む
～かる (がる)	かかる、出来上がる、見付かる、召し上がる
～く	開く、付く、乾く、空く、届く
～う	合う、伝う、出合う、違う、臭う、似合う、沿う、整う、間に合う
～する	遠慮する、苦心する、失礼する、対する、矛盾する、迷惑する、面する、有する、流行する、不足する
～す	致す、申す

～ぶ	浮かぶ、及ぶ
～げる	焦げる、茂る、溶ける
～つ	建つ、経つ

이상에서 日本語의 受動表現에 대하여 全般的으로 살펴보았는데, ①～⑤는 相当히 固定的인 受動이라고 할 수 있다. 直接対象의 「を格」의 名詞를 受動表現의 主語·主格으로 하는 受動으로, 前에는 그다지 使用되지 않았던 非情의 受動도 꽤 나타나 있다.

그에 대하여, ⑥～⑩까지는 対格을 利用하지 않고, 相対나 第三者·所有者등의 人間을 使用한 受動으로, 動作主가 省略되거나, 自動詞도 受動이 된다는 것과, 또한 迷惑·利益·中立의 受動들이 共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直接·間接·所有 受動의 相関関係

日本語의 受動을 直接受動·間接受動 두 가지로만 下位 分類할 때,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두 가지 下位 分類사이의 中間的인 受動으로서, 그 存在에 대한 取扱方式이다. 이런 中間的인 存在는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이 가지는 特徵을 部分的으로 共有하는 것으로 어느 쪽 受動의 下位에 分類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 때문에 従来의 이런 中間的 存在는 直接受動·間接受動이라는 두 受動表現 이외에 이른바 所有受動이라는 独立된 하나의 受動表現으로서 設定하는 境遇도 있다. 그러나 受動의 下位 分類의 設定은 그 設定의 基準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런 中間的인 受動도 通語 意味의 面에서 分析하면, 直接受動에 包含시킬 수 있는 部分과 間接受動에 包含시킬 수 있는 部分으로 나눌 수 있다는 入場도 있다.[26] 이 入場은 直接受動에 포함시킬 수 있는 受動을 「非分離性 関

26) 丁意祥(1997), 前掲書, p.168

係의 受動」으로, 間接受動에 包含시킬 수 있는 受動을 「分離 可能한 関係의 受動」이라 하여,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의 한 種類로서 設定하는 根拠 및 그 基準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러나 学習者들에게 混乱을 안겨 줄 수 있다는 憂慮가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이 中間的인 受動을 前述한 <所有受動>으로 分類하고, 이 部分에서는 直接受動과 間接受動, 그리고 所有受動의 세 가지 受動의 相関関係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3.3.1. 直接受動과 間接受動

動作의 対象이 述語動詞가 나타내는 動作·行為에 直接적인 影響을 받는 境遇를 「直接受動」, 動作의 対象이 間接적인 影響을 받는 「間接受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受動은 意味上의 差異뿐 만 아니라, 述語動詞 選択과 表現 機能上에서도 差異가 있다. 즉 間接受動이 自動詞와 他動詞를 모두 취할 수 있는 반면, 直接受動은 他動詞만을 취하며, 또한 表現 機能上에서 間接受動은 普通으로 被害나 迷惑를 나타내는 境遇가 많으나, 直接受動은 그런 制限은 없다. 構文的으로 보면, 直接受動文이 対応하는 能動文을 가지는데 반해, 間接受動文은 対応하는 能動文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에서 주의를 要하는 것은,

59) マンションが建てられた。

60) マンションを建てられた。

59)·60)의 文에서, 助詞에 「が」를 使用하는가, 「を」를 使用하는가에 따라 受動의 種類가 달라진다. 59)은 直接受動으로, 無生物을 主語로 하는 「非情의 受動」이다. 따라서 「マンション」에 대하여 単純하게 建築되었다고 하는 事実을 叙述하고 있는 반면에, 60)은 文에 나타나 있지 않는 「が格」의 位置에 사람이 올 수 있는 間接受動인 것이다. 즉, 影響을 받는 主体(被動作主)는 따로 存在하고, <マンションが建つ>에서 그 主体가 影響을 받았다는 것을 意味한다.[27]

3.3.2. 間接受動과 所有受動

動作이나 作用, 즉 어떠한 行為의 対象이 되는 것의 所有者를 主語로 하는 表現으로, 目的語가 「所有者＋の＋所有物」의 構造를 가지는 能動他動詞文에서 派生한 受動文을 「所有受動」이라 칭한다. 所有受動에서는 一般的으로 動作主가 所有物에 直接 影響을 미치므로, 主語인 所有者는 動作主로부터 直接 影響을 받지않는다. 所有受動도, 어떤 行為의 結果가 迷惑의 意味를 나타내는 境遇가 많지만,

61) 父は母に玄関の鍵をかけられた。(間接受動文)

62) 太郎が泥棒に財布を盗まれた。(所有受動文)

<母が玄関の鍵をかけた>라는 事件에서, <父>가 影響을 받는다고 한다면, 61)과 같은 受動文이 成立하며, 이는 <母が玄関の鍵をかけた>의 動作主<母>는, 61) 受動文의 主語에 該当하는 <父>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他動詞의 間接受動文인 것이다. 그리고 62) 또한, 他動詞의 間接的인 受動文이지만, 이는 <盗む>의 対象은 <(太郎の)財布>, 즉 主語에 該当하는 것의 一部 혹은 所有物·身体등이 動作主의 対象이 되는데, 이를 「所有受動」 또는 「持ち主受動」라 하며, 이는 지금까지의 大多数의 分析에서, 意味를 基準으로 「利害の受動」이라든가 「間接受動」으로서 取扱되어 왔으나, 詳細하게 分析하여 보면, 반드시 그러하지만은 않다는 事実을 알 수 있다.[28)]

63) 太郎は知らない男に頭を殴られた。

64) 太郎は泥棒に財布を盗まれた。

---

27) 日本語教育学会(2005), 前掲書, p.p.108～109

28) 兪長玉(1996), 「日本語의 持ち主受動에 관한 考察」『大邱暁星가톨릭대학교 研究論文集 第 53輯』, p.216

65) 太郎は通り魔に弟を殺された。

例文을 보면, 意味的으로, 63)은 直接적인 影響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64)·65)는 間接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中立的인 受動을 間接受動과 分離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3. 直接受動과 所有受動

他動詞 부분의 ⑤의 형식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直接受動의 構文的인 特徵으로서 能動文과 그에 対応하는 受動文을 構成하는 여러 가지의 必須構成要素의 사이에서의 格変換이 행하여지며, 특히 「が格」의 変換이 義務的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必須構成要素 사이에서 格変換의 層이 同一하기 때문에, 能動動詞와 이에서 派生된 受動動詞의 各各의 必須構成要素, 즉 必須項의 数는 基本的으로는 増減이 없다는 特徵[29] 을 보이는데, 이는

66a) 会社が田中さんの功績を評価した。

66b) 田中さんは会社に功績を評価された。＊(所有受動文)

66c) 田中さんの功績は会社に評価された。 (直接受動文)

위의 例文 66a)와 같이 目的語가 「所有者＋の＋所有物」의 構造를 한 能動 他動詞文에서는 一般的으로 所有受動이 기대되지만, 実際로 66a)에서는 66b)와 같은 文(所有受動文)은 非文이 되며, 66c)와 같이, 다른 一般 他動詞文과 마찬가지로 「直接受動」으로 転換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要因은, 여러 가지로 複雑하지만, 그 중 한 要因으로, 所有者와 所有物을 分離할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 <B(所有者)のC(所有物)>에서 所有物이 具体的인 名詞인 境遇는 所有受動으로 転換되는 境遇가 많지만, 所有物이 推想的인 内容인 境遇에는 直接受動의 境遇가

29) 丁意祥(1997), 前掲書, p.46

보다 自然스럽다.

67a) 当時の人々は彼の優れたアイデアを無視した。

67b) 彼は当時の人々に優れたアイデアを無視された。*(所有受動文)

67c) 彼の優れたアイデアは当時の人々に無視された。 (直接受動文)

따라서, 所有物이 作品·業績·提案·아이디어와 같은 抽象名詞인 境遇는, ⑤의 형식(「BのCがAに他動詞(ら)れる」)을 취하는 直接受動으로 転換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所有者와 所有物을 分離할 수 없지만, 直接受動으로의 転換이 不可能한 境遇가 있는데,

63a) 知らない男が太郎の頭を殴った。(能動文)

63b) 太郎の頭は知らない男に殴られた。* (直接受動文)

63) 太郎は知らない男に頭を殴られた。 (所有受動文)

이는 所有主인 <太郎>와 所有物인 <頭>는 分離할 수 없으므로, 위의 説明(所有主와 所有物을 分離할 수 없는 境遇는 直接受動으로 転換된다)에 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형식은, 対応하는 能動文이 「AがBのCを他動詞」라는 構造에서, A가 身体一部·所有物·親族 또는 知人등을 나타내는 名詞의 境遇에 한한다.

65) 太郎は通り魔に弟を殺された。(所有受動文)

65a) 太郎の弟は通り魔に殺された。(直接受動文)

이 受動文은 直接受動文과 所有受動文, 두가지 境遇로의 転換이 可能하며, 위의 예문 63b)·63)을 보면, 直接受動文의 転換은 不可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表로 나타낼수 있다.[30)]

<表8>

	直接受動	所有受動
身体部分	X	◎
所有物	○	◎
親族·知人	◎	◎

◎ : 自然
○ : 可能
X : 不可能

이처럼, 構造的으로는 同一한 所有受動의 境遇에도, 直接受動의 転換可能性은, A의 名詞 種類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れる」「られる」의 受動 表現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受動은 助動詞「れる」「られる」를 갖고 나타내는 것 중 하나로, 한쪽 (動作主)에서 다른 쪽(被動作主)으로 어떤 行為(出来事)가 미쳐 그 影響을 받는 境遇에, 받는 쪽(被動作主)의 사람이나 事物을 主格으로 固定시켜 나타내는 表現을 意味하며,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을 모두 成立하는 他動詞와, 間接受動에 밖에 成立하지 않는 自動詞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れる」「られる」의 受動 表現은 매우 多様한 형식들로 나눌 수 있었으며, 直接受動과 間接受動 그리고 所有受動에는 서로의 相関関係가 存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 庵功雄(2002), 前掲書, p.p.103～104

4. 「れる」「られる」의 可能 表現

現代 日本語에서의 可能表現은 (1)動詞 自体에서 派生되는 可能型(可能動詞) ①「れる」「られる」②第1類動詞에서 派生한 협의의 可能動詞 ③「する ⇒ できる」 (2) 動詞의 기본형에 「～ことができる」를 接続시키는 형식, (3) 動詞의 연용형에 「～うる/～える」에 의해 接続시키는 方法과 같이 多様한 형식으로 実現[31]되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れる」「られる」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動詞 자체에서 派生되는 可能型(可能動詞)에 해당하는 「れる」「られる」의 可能表現만을 重点的으로 叙述하고, 이외의 다른 表現들은 省略하기로 한다.

可能이란, 통상 動作主体가 어떤 動作을 実現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 또는 어떤 状態가 될 可能性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具体的으로 説明하면, 基本文의 述語動詞가 可能態를 취할 수 있는 条件으로는, 可能主体가 有情物이어야 한다는 점과 意志性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2]

68a) 僕は五時ごろには家を出る。(基本文)

68b) 僕は五時ごろには家を<u>出られ</u>る。(可能文)

위의 例文에서 알 수 있듯이, 68a)를 基本文으로, 可能文 68b)가 成立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可能文이 成立하지 않는 文도 存在한다.

69a) 落ち葉が落ちる。

---

31) 이성규·권선화(2004), 『日本語 助動詞 研究Ⅱ -日本語 실용文法의 전개Ⅶ-』, 불이문화, p.169

32) 李光秀(2000), 「日本語 可能文의 構造」『日本研究15』, 中央大学校 日本研究所, p.112

69b) 落ち葉が落ちられる。*

69a)는 主語가 無生名詞로서, 소위 無意志性 自動詞文에 대한, 可能文 69b)는 成立되지 않는다. 이는 <落ちる>에 主体의 意志性이 없기 때문이며, 이런 점에서 可能表現이 成立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主体의 意志性이 前提되어야 한다. 즉 可能文의 主体名詞句에 있어서 可能 主体의 意志性이 없으면 可能表現이 成立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前述한 바와 같이, 可能文의 条件으로 有情物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人格的인 存在만이 意志性을 表出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人格的인 存在는 基本的으로는 人間이지만, 이에 反하는, 즉 可能主体가 有情物에 限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反例를 들 수 있을 것이다.

70) このミサイルならどんな巨船でも沈められる。

70)의 文을 보면, 可能의 主体는 비록 無情物이지만, 스스로의 意志에 의해서 어떤 動作의 成立이 可能하다고 하는 話者의 認識에 의해 許容되는 境遇라고 볼 수 있다. 즉 人格化될 수 있는 것도 包含된다는 것이며, 擬人化의 延長線에서 人間과 類似한 能力을 갖는 機械나 自然現象 등은 人間과 마찬가지로 可能의 主体로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日本語의 可能은 動作主体의 意志에 의해서만 実現할 수 있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実現시키는 自然的인 能力과 状況이 具備되어 있다는 事実을 意味한다. 물론 意図的인 努力의 結果, 「可能性」을 獲得하는 境遇도 있지만, 意図的인 努力을 하지 않아도 自然히 実現된다고 하는 領域에 到達하지 않으면, 可能性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意図를 갖는 人間이든 意図를 갖지 않는 無生物이든 可能性을 가질 수 있다는 論理가 成立한다.

4.1. 可能의 意味와 機能

可能이라는 것은, 動作의 主体가 動作을 意志的으로 行할 境遇, 이 動作을 実現하는 것이 可能한가, 不可能한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이는

71a) 私は、どうしてもそのことが信じられない。

71a)에서는 「信じる → 信じられる」와 같이 動詞에 助動詞 「られる」가 接続된 形態가 述語로 쓰이고 있다. 이는 可能의 主体가 主題化 된 예이고, 이것의 基本文으로서는,

71b) X[私]に(どうしても)Y[そのこと]が信じられない[こと]。

71b)를 想定할 수 있다. 여기서 <Xに>의 X는 어떤 것이 可能한 状態에 있는 者, 또는 그러한 能力을 具備한 者, 즉 可能 또는 能力의 主体이고, <Yが>의 Y는 可能·不可能의 対象을 意味한다.

71c) X[私]が(どうしても)Y[そのこと]を信じない[こと]。

그리고 위의 71b)는 71c)와 構文的인 立場에서 볼 때 規則的으로 対応하고 있다고 判断할 수 있다. 즉 71c)에서 動作의 対象의 役割을 하는 Y가 71b)에서는 可能·不可能이라고 하는 사항의 対象으로 그 役割이 転換되어 있다. 그리고 71c)에서 動作의 主体로서 主格의 位置에 있는 <Xが>의 X가 71b)에서는 <Xに>의 形態로 <X의 立場으로서는 그 일이 可能·不可能>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役割을 하고 있다. 이러한 可能은 여러 가지의 境遇가 있는데,

72) どんな牢屋からでも簡単に出られる。

73) 三十分たてば、試験場から出られる。

74) 時がたてば忘れられる。

72)와 73)을 比較해 보면, 72)는 <出る人>의 能力에 대한 問題를 叙述하고 있지만, 73)은 그런 能力에는 전혀 観心이 없으며, 外的制約 즉 <出る>에 대한 許可를 叙述하고 있다. 또한, 74)는 조금 다른데, 이 境遇는 72)에 비해, 動作의 처사를 잊으려고 하는 意志나, 그것을 이루려는 能力등에 대해서는 観心이 드러나 있지 않고, 오히려 外的条件 쪽에 中心을 두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는 73)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3)의 外的条件이, 許可·不許可라는 観点에서 把握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74)는 動作·作用의 実現·状態의 変化등이, 이른바 環境의 힘에 의해 行하여지는 것처럼 表現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外的条件에 중점을 둔다고 해도, 73)은 制約的인 反面에, 74)는 오히려 그 変化를 成就시키는 힘으로 把握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意味를 区別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動作·作用이 主体의 能力에 중점을 두는 可能.

十分ほどで<u>来られ</u>ますか。

窓は簡単に<u>あけられ</u>ます。

(2) 動作·作用이 행하여지는 外的条件에 중점을 두는 可能.

① 外的条件이 制約적으로 把握되는 境遇.

ここでは本が<u>見られ</u>ません。

だれでも<u>出られ</u>ません。

② 外的条件이 実現시키는 境遇.

彼だけは<u>信じられ</u>る。

…以上のように<u>感じられ</u>る。

(2)의 ②는 소위 自然可能으로, 이를 사이에 두고 自発에 連続되고 있는데, 이 境界에 明確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不自然스러워 진다고 할 수 있다.[33)]

4.2. 可能의 主体와 対象

可能表現에서 可能의 主体인 主語를 「～に」 또는 「～には」·「～にも」로 나타내는 境遇가 있는데, 특히 부정문에서는 「～には」로 되는 境遇가 많다.

75) この機械は簡単ですから、誰にでも組み立てられます。

76) 子供にも教えられます。

77) サラリーマンにはこんな高い料理は食べられません。

또한, 他動詞文의 主体는 「～に」이외에도 「～が」도 可能하다.

78) {彼に/彼が}リンゴが食べられる。

<XがYがV(他動詞)>의 境遇에는 이중주격구문이 되는데, 이를 회피하고자 할 境遇, 또는 원래의 他動詞文을 構成하고 나서, 可能態로 転換하고자 하는 意識이 作用할 境遇에는 <X>가 <Xが>를 취하면, <Y>는 <Yを>를 취하는 예도 많이 나타난다.

79) 彼がリンゴを食べられる。

이는 <XがYをV(他動詞)>에 대해, ①<XにYがV>, ②<XがYがV>, ③<XがYをV>

33) 松村明(1987), 『古典語·現代語 助詞·助動詞詳説』, 学灯社, p.p.73～74

와 같이 多様한 可能文이 現実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他動詞의 可能文 중에는 可能의 主体인 <X>가 話題의 中心이 안되기 때문에 存在하지 않는 表現도 있다.

80) この茸は食べられない。

80)과 같은 表現의 叙述内容은,

81) [人間に]この茸は食べられる[こと]。

81)에 相当한다고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 ]의 部分은 [一般的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와 같이 不特定 多数를 内包하고 있는 境遇가 많다. 이러한 可能表現을 「受動的可能表現(passive potential)」이라 하는데, 이는 <4.4. 受動과의 相関関係> 部分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可能의 対象은, 他動詞의 境遇에는 「を格」으로 나타내는 動作의 対象을, 可能文에서는 「が格」으로 転換하여 나타내는 것이 普通이다.[34]

82a) 新しい言葉を覚えます。

82b) 新しい言葉が覚えられます。

그러나, 이것은 絶対的인 것이 아니며, 基本文의 「を格」이 그대로 維持되는 境遇도 있다.

83) あの銀行の横の路地に車を停められます。

84) このビルの内装を見られますか。

이처럼 可能의 対象이 「が格」을 취하는가, 「を格」을 취한는가의 差異는,

34) 日本語教育学会(1982), 前掲書, p.200

85a) 私はあの人を助ける。

85b) 私はあの人が助けられる。

85c) 私はあの人を助けられる。

例文에서와 같이, 基本文 85a)를 可能表現으로 転換하면, 85b)·85c)가 되는데, 이는 85b)보다 85c)가 <あの人>를 조금 強調한 表現이 된다[35]고 할 수 있지만, 可能文의 主体나 対象이 어떤 格助詞를 취할 것인가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多様한 要因이 作用하고 있어, 이를 文法的인 側面만을 考慮하여, 一般化하기는 어렵다. 다만, 可能의 対象에 焦点이 놓여진 境遇, 또는 文 構造가 複雑하여 원래의 格関係를 維持할 必要性이 있을 境遇에도 基本文의 「を格」이 그대로 維持되는 傾向이 있다.

4.3. 可能表現의 格関係 変化

可能表現의 類型은 <Aに(は)Bが動詞(ら)れる>의 형식이 된다. 이는 一般的인 類型으로서의 例이며, 「に格」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には>나 <～にも>등도 可能하다. 또한, A는 省略할 수 있으며, 動詞에는 可能動詞도 使用할 수 있다.

AがBを動詞

Aに(は)Bが動詞(ら)れる

86a) 太郎が次郎を教える。(基本文)

86b) 太郎に(は)次郎が教えられる。(可能文)

基本文에서의 主格인 <太郎>와 被動作主인 対格의 <次郎>가, 可能文에서는 各

35) 松村明(1987), 前掲書, p.p.74～75

各의 対格과 主格이 된다. 이를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9>

	基本	可能
動作主	主格	斜格
被動作主	斜格	主格

이는, 前述한 受動과 一致한다. 즉, 意味的인 면과 形態的인 면에서는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可能에는 受動과는 다른 면이 있는데, 이는 受動에서는 主格이 主語였지만, 可能에서는 与格의 名詞가 主語이고, 主格이 主語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는 機能的인 면에서 差異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듯, 可能은 受動과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4.4. 受動과의 相関関係>部分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4.4. 受動과의 相関関係

可能表現은,

87) どうしても<u>行かれ</u>ない。

88) 一度にそんなに<u>飲まれ</u>ないよ。

89) 眼鏡なしでも<u>読まれ</u>る。

87)～89)와 같이 受動表現과 同一한 形態가 使用되고 있으며, 특히 俗談 등에 있어서는,

90) 泣くに泣かれぬ気持だった。

91) 止むに止まれぬ事情。

92) 言うに言われぬ悔しさ。

93) 許されぬ事だ。

위의 例文과 같이 表現이 고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受動과 可能의 関聯性을 엿볼 수 있다. 특히 <思われる>와 같이 思考·心理 動詞의 境遇에 있어서는 그 傾向이 현저하게 나타나, 意味的으로 受動을 表現하고 있는가, 아니면 可能을 表現하고 있는가 판별하기 어려운 境遇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現代 日本語에 있어서도 受動·可能은 각자의 独自的인 領域은 認定되지만, 部分的으로는 연속성을 維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寺村는 可能表現을 「能動的可能表現(active potential)」과 「受動的可能表現(passive potential)」으로 区別하고, 前者에는 動作主에게 能力이 있는 것을, 後者에는 対象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包含시키고 있는데, 이는

94) 私がリンゴが食べられる。

95) このリンゴは食べられる。

94)에서의 <私が>를 能動構文에서의 主語와 同等한 役割을 하는 成分으로 보아 能動主格으로, <リンゴが>를 受動構文의 主語와 同等한 役割을 하는 成分으로 보아 所動主格으로 認識하고 있다. 여기에서 可能主体의 存在가 具体的으로 設定되고 主語化하여 文의 主役으로 등장하며, 또한 어떤 行為에 대한 可能主体의 可能与否에 視点을 둔 可能文이고, 95)에서는 可能의 主体가 不特定 多数를 指称하고, 文의 表面에 顕在하지 않으며, 所動主語나 그 밖의 補語成分이 主語 또는 主題化하여, 이에 대한 性質이나 状態등의 속성을 表現하는데 視点을 둔 可能文을 想定 할 수 있다. 그리고, 94)에서와 같이, 可能 主体의 内部条件으로서의 能力을 나타내거나, 外部条件으로서의 許容등을 叙述하고 있는데 비해, 95)는 可能主体의 어떤 動作의 実

現을 위한 可能与否를 叙述하고 있는데, 이를 寺村는 94)의 可能文을 「能動的可能表現(active potential)」이라하고, 95)의 可能文을「受動的可能表現(passive potential)」[36]이라 하였다.

그런데, 受動的 可能表現은 문맥, 즉 앞뒤 文章에 의해 혹은 具体的인 発話 状況에 관한 지식에 의해, <Xに/が>가 省略된 境遇와 区別해야 할 것이다.

96) 日本ではこの動物はもう見られない。

97) 人の口に戸は立てられない。

98) この電話はどこへでもかけられる。

99) この島ではしょっちゅう虹が見られる。

이상과 같이 「受動的 可能」과 「受動」은 聯関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可能을 나타내는 第1類動詞의 境遇는, <行く → 行ける>·<飲む → 飲める>와 같이, 辞典形의 語尾를 「e段」의 음으로 転換하여 「る」를 接続시키는 可能動詞를 使用하므로, 受動의 「第1類動詞＋れる」와는 다른 形態를 이룬다.

100) 前に一度行ったことがあるから、一人で行かれます。

101) 羽衣がなければ、天へ帰られません。

위의 例文에서, 100)의 <行かれる>, 101)의 <帰られる>는 第1類動詞에 助動詞 「れる」가 接続되는데, 이 境遇 <行ける>·<帰れる>와 같은 可能動詞가 그 機能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変化의 움직임은 動詞 중에 多数를 차지하고 있는 第1類動詞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第2類動詞에 까지 拡散되고 있다. 이 第2類動詞와 第3類動詞인 <来る>에는 「られる」를 接続시켜 可能形을 만드는데, 이는 受動과 같은 形態를 이룬다.

36)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 くろしお出版, p.258～261

102) あのう、モデルハウスを見たいんですが、見られるでしょうか。

103) 今日は何もないから、会合に出られます。

104) 会社が 6 時に終わるから、 8 時までには来られます。

위의 例文 102)～104)는 「られる」가 接続된 形態, 즉 受動과 같은 形態가 쓰이고 있지만, 이는 実際로는 <見る → 見られる → 見れる>, <来る → 来られる → 来れる>와 같이 第1類動詞에서 派生되는 可能動詞에 類推되어 「られる」라는 文法형식에서 「～る → ～れる」와 같은 第2類動詞化로 可能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이행중이다. 이러한 変化의 양상은 比較的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現在도 進行 中이며,

105a) あれはいつでも見られるよ。

105b) あれはいつでも見れるよ。

106a) 僕は今すぐでも出られますよ。

106b) 僕は今すぐでも出れますよ。

107a) 昨日は急用ができてしまって、来られませんでした。

107b) 昨日は急用ができてしまって、来れませんでした。

이와 같이, 105a) · 106a) · 107a)의 <見られる> · <出られる> · <来られる>에 대해, 105b) · 106b) · 107b)의 <見れる> · <出れる> · <来れる>와 같이 「られる」에서 「～ら」가 脱落된 形態, 즉 「ら抜き言葉」의 使用이 늘고 있다. 이러한 現象에 대하여, 이전에는 規範的인 立場에서 誤用이라고 規定했지만, 점차 一般化 되어 지금은 規範的으로도 認定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第2類動詞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ら抜き言葉」現象이 일어난다고는 할 수 없다. 2音節 動詞인 <出る>·<見る>, 3音節 動詞인 <起きる><食べる>에서는 「ら」가 脱落된 語形이 定着하고 있고, <来る>의 境遇는 <来られる/来れる> 둘 다 許容되고 있다. 그런데, <出かける>(4音節)·<捕まえる>(5音節)와 같이 比較的 音節数가 많은 動詞의 境遇에는 어떠한가 하는 問題, 또한 使用頻度와 「ら抜き言葉」現象의 相関関係 등 앞으로 解決

해야 할 問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Ⅲ. 結論

日本語 学習者가 当面하는 日本語表現 중에서 相当한 陳述力이 内在되어 있는 助動詞에 중에서도 「れる」「られる」의 受動과 可能을 中心으로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日本語 学習者가 当面하는 日本語表現 중에서 相当한 陳述力이 内在되어 있는 助動詞에 대하여 考察해 보았는데, 助動詞는 付属語로서 活用하며, 用言에 接続하여 意味를 添加하며 体言이나 用言에 接続하여서, 叙述의 機能을 附与해 주는 品詞라는게 一般的이다. 그러나 <助動詞란 무엇인가>라는 定義의 問題도, <어떤 単語를 助動詞로 할것이가>라는 所属語의 問題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文法的인 特性을 総括的, 統一的으로 把握하려는 것보다는, 箇箇 項目의 特性을 明確하게 하고, 日本語의 文法体系로 자리 잡는 것이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助動詞 중에서도「れる」「られる」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現代 日本語의 助動詞 「れる」「られる」를 受動, 可能, 自発, 尊敬 助動詞라고 하며, 어떤 動詞에는 「れる」를 接続하고, 또 어떤 動詞에는 「られる」를 接続하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れる」「られる」라고 表現한다. 이는「異形態」로서 接続에 있어 差異点을 보일 뿐, 活用이나 意味 · 用法에 있어서 差異는 없다. 受動은 一般的으로 動作·作用의 主体가 다른 무엇인가에 動作·作用을 가한 境遇의 動作主를 主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받는 쪽, 즉 被動作主를 主役으로 하여, 事態를 描写하는 表現을 말하며, 動作의 主体가 動作을 意志的으로 行하는 境遇, 그 動作을 실현하는 것이 可能한지의 여부를 陳述하는 文을 可能文이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自発은 感情·思考·判断·認識·動作등이 主体의 意志와는 無関하게, 혹은 그것에 反하는 形態로 자연히 出現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에는 <思う>·<思い

出す>·<案じる>·<心配する>등 주로 思考의 동사가 大部分이다. 마지막으로 尊敬은 文 主語의 位置에 올 수 있는 人物에게의 경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主体尊敬語라고도 불리우며, 「れる」「られる」를 가지고 나타내는 尊敬表現이 지극히 一般的인 表現이기 때문에 口語的인 立場에서 보면 가장 普遍的이라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意味는 하나의 系列이며, 이 分類 또한 便宜的인 것, 다시 말하면, 「れる」「られる」라는 単一 形態로 여러 가지 意味(受動, 可能, 自発, 尊敬의 意味)를 갖기 때문에 이를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助動詞 「れる」「られる」의 意味 中, 受動과 可能表現을 中心으로 展開해 보았는데, 먼저 受動은, 助動詞 「れる」「られる」를 갖고 나타내는 것 중 하나로, 한쪽 (動作主)에서 다른 쪽(被動作主)으로 어떤 行為(出来事)가 미쳐 그 影響을 받는 境遇에, 받는 쪽(被動作主)의 사람이나 事物을 主格으로 固定시켜 나타내는 表現을 意味하며, 이는 ① 対応하는 能動文의 動作主를 不問에 붙이고 싶은 境遇, ② 影響을 받는 쪽이 影響을 주는 쪽보다 가까운 境遇, ③ 従属節의 主語를 主節의 主語와 統一하고자 하는 境遇, ④ 迷惑의 気分을 나타내고 싶은 境遇에 受動으로 表現하게 된다. 現代 日本語 受動의 特徵 중 하나는, 英語의 受動文과는 달리 自動詞도 受動文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이는 間接受動에 한하며, 이 間接受動은 直接受動과 다르게 文法的으로는, 直接対応하는 能動文이 存在하지 않고, 主語에 対応하는 動作主 또는 原因의 関与가 間接的이라는 意味的 特徵을 가지는 受動을 말한다. 이는 事態로부터 間接的으로 被害를 받는 사람의 立場에서 陳述하기 때문에 話者가 被害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動作主는 나타내어지지 않는 境遇가 많다.

이에 대립되는 受動으로, 意味的으로 主語에 대한 動作主나 原因의 関与가 直接인 受動과, 形態的으로는 対応하는 能動文을 가지며, 対応하는 能動文을 가지는 受動을 直接受動이라고 한다. 이는 他動詞에 制限된다. 日本語의 受動文에 또 하나 타입을 認定하는 立場도 있는데, 動作이나 作用, 즉 어떠한 行為의 対象이 되는 것의 所有者를 主語로 하는 表現으로, 目的語가 「所有者＋の＋所有物」의 構造를 가지는 能動他動詞文에서 派生한 受動文을 「所有受動」이라 칭한다. 所有受動에서는 一般的으로 動作主가 所有物에 直接 影響을 미치므로, 主語인 所有者는 動作主로부

터 直接 影響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れる」「られる」의 可能이라는 것은, 動作의 主体가 動作을 意志的으로 行할 境遇, 이 動作을 実現하는 것이 可能한가, 不可能한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基本文의 述語動詞가 可能態를 취할 수 있는 条件으로는, 可能主体가 有情物이어야 한다는 점과 意志性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日本語의 可能은 動作主体의 意志에 의해서만 実現할 수 있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実現시키는 自然的인 能力과 状況이 구비되어 있다는 事実을 意味하며, 의도를 갖는 人間이든 의도를 갖지 않는 無生物이든 可能性을 가질 수 있다. 또한, 可能의 意味를 (1) 動作·作用이 主体의 能力에 중점을 두는 可能, (2) 動作·作用이 행하여지는 外的条件에 중점을 두는 可能, ① 外的条件이 制約的으로 把握되는 境遇, ② 外的条件이 実現시키는 境遇로 区分할 수 있었으며, 可能의 主体인 主語를 「～に」 또는 「～には」·「～にも」로 나타내는데, 특히 부정문에서는 「～には」로 되는 境遇가 많다. 이처럼 <可能文의 主体나 対象이 어떤 格助詞를 취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多様한 要因이 作用하고 있어, 이를 文法的인 側面만을 考慮하여, 一般化하기는 어렵다.

可能과 受動은, 第2類動詞와 第3類動詞인 <来る>에는 「られる」를 接続시켜, 同一한 形態가 使用되고 있으며, 특히 속담 등에 있어서는, 表現이 고정되어 있어, 受動과 可能의 関聯性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思考·心理 動詞의 境遇에 있어서는 그 傾向이 현저하게 나타나, 意味的으로 受動을 表現하고 있는가, 아니면 可能을 表現하고 있는가 판별하기 어려운 境遇가 많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앞뒤 文章, 혹은 具体的인 発話 状況에 관한 知識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어로는 <見る → 見られる → 見れる>, <来る → 来られる → 来れる>와 같이, 「られる」에서 「～ら」가 脱落된 形態, 즉 「ら抜き言葉」의 使用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에 대하여, 이전에는 規範的인 立場에서 誤用이라고 規定했지만, 점차 一般化 되어 지금은 規範的으로도 認定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比較的 音節数가 많은 動詞의 境遇와 「ら抜き言葉」現象의 相関関係 등 앞으로 解決해야 할 問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助動詞 「れる」「られる」의 受動과 可能을 中心으로 考察해 보았는데, 学習者들의 올바른 理解와, 效率的이고 応用力 있는 日本語의 活用을 위한 言語習慣을 돕고자 하는 本 論文의 趣旨가, 学習者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参考文献

李成圭(2001), 『日本語 受動文 研究의 展開』, 불이문화

이성규·권선화(2004), 『日本語 助動詞 研究Ⅰ -日本語 실용문법의 전개Ⅵ-』, 불이문화

_____(2004), 『日本語 助動詞 研究Ⅱ -日本語 실용문법의 전개Ⅶ-』, 불이문화

大槻文彦(1897), 『広日本文典』, 大槻家蔵書

北原保雄(1981), 『日本語助動詞の研究』, 大修館書店

金田一春彦(1990), 『日本語の姿』, 大修館書店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事典』, くろしお出版

国立国語研究所(1980), 『現代語の助詞·助動詞 -用法と実例-』, 秀英出版

_____(1982), 『日本語の文法(上)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4-』, 大蔵省印刷局

庵功雄(2002), 『新しい日本語学入門』, J&C

島田昌彦(1979), 『国語における自動詞と他動詞』, 明治書院

鈴木一彦·林巨樹(1984), 『研究資料日本文法 -助辞編(二) 助動詞- 第6巻』, 明治書院

_____(1985), 『研究資料日本文法 -助辞編(三) 助詞·助動詞- 第7巻』, 明治書院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 くろしお出版

日本語教育学会(1982),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_____(1990), 『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 大修館書店

_____(2005), 『新版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橋本進吉(1965), 『助詞·助動詞の研究』, 岩波書店

松下大三郎(1978), 『改撰標準日本文法』, 勉誠社

松村明(1987), 『古典語·現代語 助詞·助動詞詳説』, 学灯社

松本泰丈(1986), 『日本語研究の方法』, むぎ書房

三上章(1979), 『現代語法序説』, くろしお出版

森田良行(1982), 『基礎日本語1』, 角川書店

山田孝雄(1983), 『日本文法学概論』, 宝文館

吉川武時(1989), 『日本語文法入門』, アルク

此島正年(1993), 『助動詞·助詞概説』, 桜楓社

時枝誠記(1978), 『日本文法口語編』, 岩波書店

金永佑(1980), 「現代日本語の助動詞の概念と用法について -主に韓国語の補助語幹および補助用言の比較を中心にして-」, 釜山女大論文集 第8輯, 新羅大学校

김원호(2001), 「受動助動詞의 '모델'分類 -日本語 教育의 一方案-」
日本研究 第17号, 韓国外国語大学校 外国学綜合研究센터 日本研究所

朴鍾升(2004), 「助動詞(ら)れるの用法の変遷 -自発と可能-」
日本語文学研究 第50輯, 韓国日語日文学会

_____(2005), 「助動詞(ら)れるの用法の変遷 -自発と受動-」
日本語文学研究 第54輯, 韓国日語日文学会

朴青国(1988), 「日本語 間接受動文의 意味 考察」外国文化研究11,
朝鮮大学校 外国文化研究所

裵俊鎬(1988), 「日本語のヴォイス」『外大論叢 第6輯』, 釜山外国語大学校

安秉坤(1982), 「日本語 助動詞 研究」『慶尚大論文集第21輯』, 慶尚大学校

兪長玉(1996), 「持ち主の受動에 관한 研究」
大邱暁星가톨릭大学校 研究論文集 第53輯, 大邱暁星가톨릭大学校

李光秀(2000), 「日本語 可能文의 構造」『日本研究弟15輯』,
中央大学校 日本研究所

李成圭(2003), 「日本語受動文の研究」, 筑波大学(言語学)博士学位論文

李容日(1998), 「韓国語와 日本語 受動文 対照 研究」,
朝鮮大学校 教育大学院 碩士学位論文
李愚鎮(1995), 「日本語 助動詞의 表現機能 -韓国語와의 対応을 中心으로-」,
漢陽大学校 大学院 碩士学位論文
林春政(1989), 「韓·日両国語の受動文に関する考察 -日本語の受動文の分類とそれに対応する韓国語訳を中心に」, 漢陽大学校 大学院 碩士学位論文
丁意祥(1997), 「日本語 受動文 研究」, 大阪大学博士学位論文
趙南義(1997), 「日本語 助動詞의 考察 -～れる·～られる를 中心으로-」,
京畿大学校 教育大学院 碩士学位論文
韓世真(1995), 「日本語의 受動表現 研究 -関与者의 格関係를 中心으로-」,
檀国大学校大学院 碩士学位論文
韓淑英(2005), 「高等学校 日本語 教科書에 나타난 日本語 受動表現 -第 6,7次 教育課程을 中心으로-」, 順天大学校 教育大学院 碩士学位論文

ABSTRACT

A study of Japanese Auxiliary Verbs 'reru''rareru'

Myung, Ae-Ri

Adviser : Prof. Kim, In-Hyeon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s significant part of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is identical in grammar structures, there are many cases that learners of Japanese language use wrong expressions by apply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for Japanese. Therefore, this study believes that correct and organized instruction of Japanese through clear understanding of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Japanese is more important.

First, Japanese auxiliary verbs which have significant descriptive power are generally used as words of attachment, attached to inflected words to add meaning and attached to un-inflected words or inflected words for a function of description. However, problems relating to definition and affiliated words have not been solved yet.

Therefore, this study first suggests that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words should be clearly defined to be established as grammar system of Japanese language rather than entire identification of grammar characteristics.

Second, 「れる」and「られる」, auxiliary verbs of current Japanese are defined as those of passivity, possibility, autonomy and respect. They are variated forms which have difference only in connection and are not different in meaning and usage. For passivity, the subject of action is not used as a leader when subjects of action give others action, but the one who is given the action is a leader. It is used to describe condition. When the subject of action do his action by his will, the sentence to state whether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action is possible sentence. And, autonomy means that emotion, thoughts, judgement, recognition and behaviors appear automatically irregardless of subject's will or in contrasting form. Finally, respect is designed to show respect the persons who are located in the subject place of a sentence, which is also called a subject respect word. The four meanings are one family and such classification is designed for convenience. In other words,

as single forms of「れる」and「られる」have various meanings, they require good sense to understand.

Third, of the meanings of auxiliary verbs, 「れる」and「られる」, passivity is used in the following cases : ① when the subject of corresponding active sentence should not be known ② when the persons who are influenced are nearer than those who influence ③ when the subject of subordinate clause is unified with that of the main clause and ④ when feeling of damage is expressed.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Japanese passivity is that intransitive verbs can be used for passivity. However, this is limited to indirect passivity. Indirect passivity unlike direct passivity means that corresponding active sentence does not exist in grammar and the leader of action who corresponds to the subject or reason is indirect. In contrast, direct passivity is designed to express the cases when the leader of action or reason is direct or there is an active sentence which corresponds in form. However, it is limited to transitive verbs. There is a suggestion that another type is recognized in Japanese passive sentence. In this case, the owner of the subject of a behavior is used as a subject and its object is derived from active transitive verb sentence with a structure of 「possessor＋の＋the object possessed」, which is called possessive passivity. In possessive passivity, as the leader of behavior has a direct influence on the object possessed, the possessor, the subject is not directly influenced by the leader of behavior.

Next, possibility of「れる」and「られる」is designed to express whether it is possible or impossible to realize the behavior when the subject of a behavior acts with his will. The conditions that descriptive verbs of basic sentence can take possible voice are as follows : the possible subject will be organic matters and they will have intention.

However, possibility of Japanese language means that natural ability and condition for realization are prepared as well as it can be realized by intention of the subject. So, men who have intention or inanimate objects which have no intention can have possibility.

The meaning of possibility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1) action or behavior focuses on ability of the subject (2) a focus is given on external conditions action or behavior is done ① when external conditions are identified by external conditions ② when external conditions are realized.「～に」 or 「～には」・「～にも」 is used as subjects of possibility. Specifically, 「～には」is used for negative sentence. Likewise, whether <what case postpositions the subject or object in possibility sentence will use > is decided by various factors. So, generalization in consideration of grammatical factors alone is difficult. For both possibility and passivity, <来る> which is Type 2 verb and Type 3 verb is attached by 「られ

る」so there are many case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which meaning the sentence have. Therefore, to identify the meanings, we have to improve knowledge on specific utterance conditions.

As studied above, it is expected this study will help learners have proper understanding of Japanese and accomplish its effective and applicable use.